OCT 27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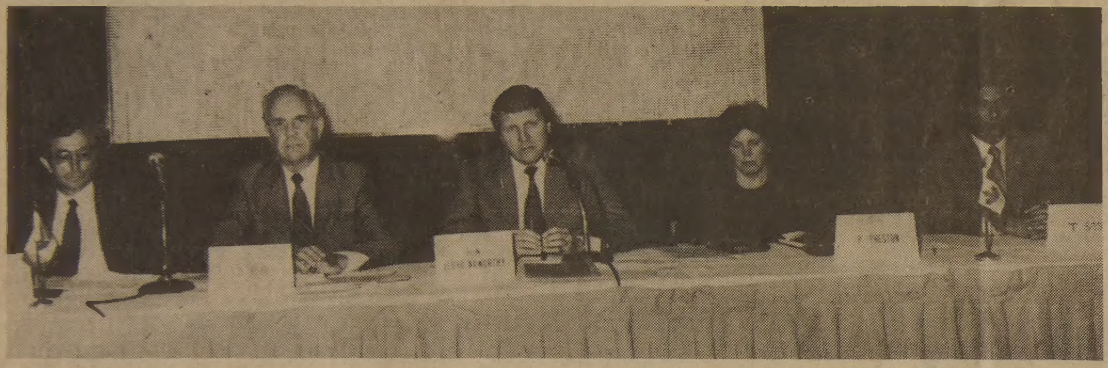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51 1981년10월2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October 22, 1981

이민 신체검사 한국서도 고려 불법체류자는 개별심사 구제

—액쉬디 이민장관 토론토서 언명—



◇액쉬디 이민성장관이 직원들을 배석시킨가운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데이빗·콘 온타리오지역 이민국장, 잭·보이드 온타리오 이민·고용국장, 장관, 팻·프레스턴 공보관, 토마스·소사 이민자문위원장.

로이드·액쉬디 연방이민성장관은 19일 한국이민 신청자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서울에 신체검사 판정관을 두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9일 토론토 프라자II 호텔에서 소수민족(에트닉) 계 언론인들과 만난 액쉬디 장관은 본사 윤방현 편집자문위원으로부터 "한국에도 유능하고 권위있는 의사들이 많은데 이민신청자들의 신체검사 결과를 꼭 홍콩에 있는 정부파견 의료관이 재심사,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이민수속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고"좋은 질문이다. 조사 선처하겠다." 고 답변했다. 또한 동장관은 수속절차 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의사가 있음을 덧 붙였다.

한국의 캐나다이민신청자들은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또는 한국병원 성모병원 등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는 홍콩의 캐나다 의료관에게 보내진다.

의료관은 검사결과를 다시 조사, 합격여부 판정을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한다.

이에 소요되는 시일은 보통 1개월 이상이므로 이민수속은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민신청자, 또는 장기 방문, 학생, 취업등 캐나다에 6개월 이상 거주예정자는 모두 신체검사를 거쳐야 한다.

필리핀의 경우 역시 홍콩에서 신체검사 결과를 판정했으나 연방정부와의 교섭결과 약 2년전부터는 필리핀내에서 결정되고 있다.

이날 액쉬디 장관은 불법체류자의 사면, 인도인들의 무비자입국 금지, 폴랜드 정치망명자의 입국등 이민문제등에도 언급했다.

불법체류자문제에 대해 액쉬디 장관은 "정부는 불법 체류자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중이다. 이미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심사, 영주권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현시점에서 미국과 같은 일괄사면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기자회견 도중 에트닉 언론인들은 "왜 정부는 소수민족 신문을 차별, 광고를 잘 내주지 않는가?" "우편요금이 비싸 거의 모든 발송을 우편에 의존하는 소수민족 신문은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있다" 는 등의 불평을 했다.

이에 대해 액쉬디 장관은 "정부로서는 에트닉신문에 차별을 하지 않는다. 정부광고등을 계속 에트닉신문에 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연방및 주정부는 이제까지 영어및 불어사용 대신문에 주는 광고의 극히 작은 분량만 소수민족 신문에게 주고 있다.

캐나다 에트닉 언론협회측은 "정부가 소수민족 언론에게 주는 광고비와 전광고비용의 비율은 전국민중 이민족의 숫자가 차지하는 비율보다 훨씬 적다"고 항의해 왔다.

한국, 예선2위 결승리그 진출

세계주니어여자 핸드볼선수권대회

(몬트리얼—정관성 지국장) 세계 주니어 여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참가중인 한국팀은 지난 17일부터 몬트리얼 남쪽 셀브르크시에서 열린 예선전에서 2승1패의 전적으로 2위를 차지,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만20세 미만의 소녀들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실내경기로 세계11개국이 참가, 3개조로 나누어 예선전을 치렀다.

17일의 1차전에서 네델란드를 19:17로 물리친 한국은 18일 우승후보의 하나인 유고와 대전, 27:22로 분패했다. 한국은 이날 경기 종료 5분전까지 리드 했으나 마지막순간 패스미스로 동점골을 허락한 후 연속 5골을 허락, 역전패 당했다.

19일 예선 마지막 경기인 미국과의 대전에서 38:11로 대승, 예선2위로 무난히 결승리그에 진출했다.

결승리그는 21일부터 몬트리얼 올림픽스타디엄 실내체육관으로 장소를 옮겨 시작됐다.

결승리그는 6개팀이 라운드—로빈으로 벌이나 예선전 전적은 그대로 참작하므로 한국의 1패(유고)를 안고 있다.

예선전 이후 홍순태단장(외대교수)은"대부분 선수가 고교재학생들로 이루어져 컨디션은 최상이다. 동메달은 무난하다"고 결승리그 전망을 했다.

한국팀의 예선전적과 결승리그 대진표는 다음과같다.

예 선:
17일 대 네델란드전 19:17(승)
18일 대 유고전 22:27(패)
19일 대 미국전 38:11(승)

결승리그:
12일 8시30 대 덴마크
22일 5:30PM 대 소련
24일 4PM 대 서독
25일 4PM 대 중공

한국일보
533-2361

교육은 유리한투자

학력별 봉급차극심

(서울21일=연합) 한국에서 교육은 분명히 가장 맞는 투자이다.

저축증진중앙위원회는 21일 한국부모는 자녀하나를 4년제대학교육을 시키기 위해 81년 경상가격으로 최소 910만원(미화 13,285달러)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교육비에도 불구 대학교육은 가치가 있다. 일생을 통해서 고졸출신보다 3천6백5십만원(53,300달러)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봉급생활자들의 일상생활계획 보고서에서 저축증진중앙위원회는 비록 고졸출신들이 대졸출신들보다 4년먼저 사회에 진출, 대졸출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할 무렵에는 이미 5백8십만원을 앞서 벌고있지만 장기간으로 볼때 대졸출신이 3,650만원이나 더 벌고 있다.

한편 중졸출신들이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대졸출신들이 20대초반에 받는 평균연봉 2백5십만원에 상당히 못미친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동보고서는 한국의 일반봉급자들의 평생벌이는 액수는 1천4백9십만원(미화 217,500달러라고 덧 붙였다.

그리스 사회주의당 압승

NATO, EEC등에 중대위협

그리이스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정당이 선거에 승리, 나토(Nato)와 유럽경제공동시장(EEC)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

18일 한때 욕(York)대학 교수였던 앙드레아스·파판드레오가 이끄는 범그리스 사회주의(PASOK)당은 총선거에서 압승, 차기정권을 인수하게 됐다.

앞으로 파판드레오(62)가 선거 가간중 공약한 나토의 탈퇴와 유럽경제공동시장 탈퇴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선거 승리후 파판드레오는 공개성명에서 "그리스 국민들을 위한 사회주의그리이스를 건설하겠다"고재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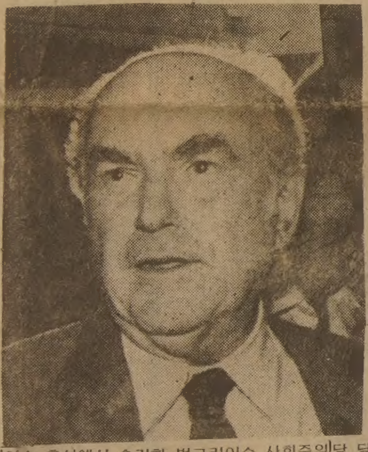
특히 이번 선거에서 파판드레오는 사회주의당(PASOK)을 전폭지지한 젊은이들과 여성들에게 감사의 멧세지를 전달했다.

그리스는 18세기초 독립국이 된 후 지금까지 보수적 정권과 우익독재정권에 의해 통치되어 왔다. 좌익정부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리이스 에서는 아주 생소한 것이다.

이번선거로 74년 군사독재의 종식과 함께 지금까지 통치해오던 보수정당신민당의 수상 죠지·랄리스는 정권을 내놓게 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사회주의당은 총투표의 47.7%를얻어 총 300의석중 174석을 차지하고 신민당은 36%(지난번 선거때는 42%)를 얻어 현의석 174석보다 63석 적은 111석이 되었다.

국회의석을 차지한 기타정당은 친 소련 공산당 으로 현 11석에서 15석이 증가됐다.



◇그리이스 총선에서 승리한 범그리스 사회주의당 당수 앙드레아스 파판 드레오.

순복음캐나다교회

3돌 기념예배겸 조목사 환영회

토론토의 순복음캐나다교회(1030 알비온·로드) 창립3주년 기념예배겸 신임 조이식목사 환영식이 신자 70명및 내빈 150명 참석하여 18일 거행됐다.

한편 조목사는 서부 베를린서 열리는 제3회 순복음세계선교회 총회 참석차 지난 20일 서독으로 떠났다.

이 세계총회에는 약 30개국에서 100여명의 선교대표가 참가한다.

토론토발행인:김 영 규
편 집 인:이 석 현
광 고 부 장:송 광 호
식 자 부 장:박 부 용
편집자문위원:윤 방 현

—사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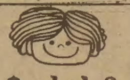
칼럼 〈제5계절〉 부활

본보의 전신 〈캐너더뉴스〉의 인기연재칼럼 〈제5계절〉이 오는 28일(수)부터 부활됩니다.

75년9월1일 권순창·박영림·박희민·이석현씨등 4명의 글로부터 시작된〈제5계절〉은 79년3월3일 문우일·김원장·정번헌·박문회씨등 4명의 글을 마지막으로 중단될 때까지 약3년반동안 많은 인기속에 계속됐읍니다.

이번 〈속·제5계절〉의 첫 필진은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후예 안토니오·코레아씨(아파트 관리인), 박충도(문협회장), 유형승(중앙시립도서관분류과장), 김숙히(씨알한국인학교 부교장)씨의 4명이며 이들은 매주 1번씩 순번으로 칼럼을 담당, 각가 3회씩 자유주제로 집필합니다.

현실과 내일에 소중한 보탬이 될 〈속·제5계절〉을애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하셨읍니까?
●주소변경을 잊지 마십시오.
독자번호와 새주소를 곧 알려주세요.
한국일보 독자부
☎533-2361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W
B.536-1692
R.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4-1129
534-1120
484 BLOOR ST.W.
(Bloor & Bathurst)

은하보석상
ROLEX
가장 믿고 살 수 있는
「로렉스지정판매 대리점」
(B) 534-9977, (R) 424-2599
635 BLOOR ST.W.
(한국관 앞)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서 울 식 품

교민을 위한 김장철 최대의 써비스! 최고의 저렴한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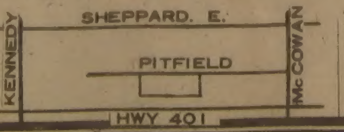
—물건이 매진 될때까지 세일 합니다—

	REG.	SPEC.
●불고기등심 최상급 Lb.(10파운드제한)	2.69	2.20
〃 중 급 Lb.(10파운드제한)	2.49	1.96
●갈 비 Lb.(BOX제한없음)	1.69	1.29
냉동갈비 Lb.	1.49	1.05
●소 꼬 리 Lb.	1.35	.95
●참기름 깡통(일본제품) A품	10.90	9.50
〃 B품	10.50	7.40
●명 간 장 1gal.		6.90
●양 잠 피 1kg	2.25	1.80
●삼양라면 1박스(50개)당 15봉지 FREE(곧도착예정)		
●삼양냉면 1박스 5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청수냉면 1박스 2인용(1박스제한)	24.00	19.00
●오징어젖 Lb.(특별가격)		.80

	REG.	SPEC
●멸 치 젖 Lb.	2.99	1.99
●어리굴젖 Lb.	4.90	2.90
●한국고추가루 Lb.	3.95	2.90
●각종선물용 상품(gift) —20% 할인		
●마늘·생강(특별가격)		1.45
●참살고추장	2.50	1.99
●된 장	1.50	.99
●달걀(1다즌, Large)		1.25
가게하시는 분은 1다즌당 1.23에 드림		
●물 미 역	1.39	.99
●무, 배추(1박스 구입시) 김장용 갈치젖($2.90) FREE		
●무, 배추(2박스 구입시) 닭표간장($2.95) FREE		
●무, 배추(3박스 구입시) 한국산 굴($8.00상당 2파운드) FREE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 울 식 품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2ND CLASS MAIL NO. 5248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SSW

시카고 교포상인 장병수씨 흑인강도에게 피살

물건훔쳐 달아나 범인뒤 쫓다가

최근 들어 교포들을 대상으로 한 흑인들의 살인, 폭행, 강도등 강력사건이 급증하여 시카고 한인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13일 또 다시 교포 상인이 흑인 권총 강도에 의해 피살 됐다.

13일 하오4시20분경, 남부 쥬·타운의 교포잡화가게 레인보우·디스카운트·마트(1346S. 힐스테드)에 4인조 흑인 강도가 들어 물건을 강탈, 도주하다가 뒤따라나온 주인 장병수씨(35세)에게 권총을 난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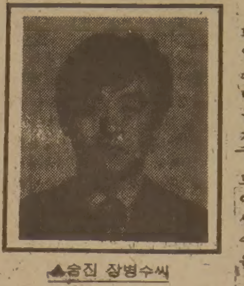
당시 가게에는 주인 장씨외에 종업원 백모여인이 있었는데, 백씨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20분전쯤 흑인 2명이 가게에 들어와 5달러짜리 수갑을 2달러에 달라고 하면서 주인 장씨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한다.

시비를 하다가 일단 가게를 나간 2명의 흑인은 잠시후 2명의 흑인을 더 데리고 가게를 다시 찾아와 수갑을 2달러에 달라고 시비를 벌이던중, 이 가운데 1명이 갑자기 권총을 들이대었다는 것.

주인 장씨와 종업원 백씨가 손을 들고 서있는 사이에 흑인 강도 4명은 수갑등을 챙겨 도주를 했는데, 이때 뒤따라 나간 주인 장씨에게 권총을 들었던 흑인이 권총을 난사, 장씨는 가슴과 옆구리등을 맞고 쿡 카운티 병원으로 급송되었으나 14일 새벽 1시경 숨졌다.

사고 당시 긴급 출동한 경찰에 의해 흑인 강도 4명 가운데 3명이 체포됐는데 관할 시카고 12지구 경찰서의 기록담당관 조셉 지브씨는 14일 "체포된 3명의 범인 가운데 권총을 쏜 주범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주범의 확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백여인의 증언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장병수씨는 6년전 도미, 지금은 사고가 발생한 쥬·타운의 잡화상외에 87번가의 가발가게도 운영하는등, 비교적 안정된 비지네스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장병수씨

장씨는 시카고 한인 상공회의소의 박중구 회장과 중앙대학교 동문지간으로 평소에 절친하게 지내 왔다는데, 박회장은 "평소에 흑인들에게 피해입은 교포 동업자들을 발벗고 나서서 돕고, 희생된 동업자들의 장례도 도맡아 치뤄주던 장씨 자신이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희생이되고 나니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감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숨진 장씨는 87번가에서 가발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부인과 세딸을 남겼다.

(시카고지사)

▲사고가 발생한 장씨의 잡화가게는 14일 상오,철문이 굳게 닫혀진채 NBC-TV방송의 취재팀이 무비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文學 진흥재단

美洲지부 LA에 설치

한국文學의 해외소개를 주요사업으로

(LA지사) 공보부산하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흥재단 미주지부가 (대표·신자은) 지난18일 LA에서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마치고 앞으로 LA문화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문인협회대표들로 구성된 한국문학진흥재단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노벨문학상 후보자추천권을 부여받은 단체로서 해외문인들의 활동을 돕고 배려시키는 일등 해외 문화활동을 펴고 있다.

한국문학진흥재단은 이번 미국에서의 비영리단체등록을 계기로 하여 영문으로 번역된 문학작품들(한국현대시선, 세종대왕전기, 한중록, 현대한국단편소설집등)을 미국에 소개하여 문화교류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한국문학진흥재단 미주대표 신자은씨는 이단체설립의 주요목적이 국내작품을 엄선하여 외국에 소개하는 것뿐아니라 장학기금설치등의 계획도 추진중이며 특히 내년 한·미수호조약 1백년을 맞아 시사성과 문화성을 띤 교육영화 보급등의 사업과 나아가서 2세교포들을 위한 2중언어교육등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미국전역에 지부와 대표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하는 신씨는 영문번역한국문학작품의 공급을 맡을 사람들의 연락을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세금면제 혜택을 받게되는 장학기금설치등 사업에 많은 교포 문화애호가들의 협조도 바란다고.

한편 이단체의 국내문학작품의 영문번역소개사업은 매스컴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있으며 일본등 선진국에 비하면 늦지만 정부의 지원하에 문화사업을 펴나갈수 있게된 점에서 전망은 고무적이다.

신자은씨는 일본의 경우 20억엔의 정부지원으로 발행물 무료배부등의 활동이 있어 왔지만 한국문학진흥재단은 우선 교포사회의 자발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탕으로 발전할수 있으리라고 희망을 밝혔다.

앞으로 LA문화원을 활동의 중심으로 할 계획이나 현재 연락처는 P.O BOX 255, 3171 WEST OLYMPIC BLVD.이고 전화:733-1100.

▲롤링스톤즈의 공연을 보기위해 몰려는 팬들—뉴욕의 오차드팍에서 열렸다.

통일문제 학술대회

평통회주최로 11월에

(서울21일=연합) 한국은 11월21~23일간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평화통일정책자문 위원회 이범석 사무총장이 21일 발표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하는 가운데 이사무총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의 의도는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통일방안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국내외에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원장관을 겸임하고 있는 이사무총장은 이번대회에 6명의 외국인학자(미국3, 일본, 서독, 호주에서 각각1)와 20명의 한국학자들이 참가하여 강연,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고말했다.

이사무총장에 의하면 이번대회에서 과거와 현재의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전망과 관련배경자료를 다룬다. 북한의 대남정책과 그들이 제안하는 "고려연방제" 그리고 남한이 거듭 제안하는 남북정상급간의 대화를 포함한 한국정부통일정책에 대해서도 평가강연을 할 예정이다.

칵테일의 창작

양주와 시럽을 배합해서, 자기만의 칵테일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보는것도 즐겁다. 맛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운 색깔이 자랑스러워, 친구나 손님에게 주는 인상은 결코 적지않다.

★그라스홉퍼(Grasshopper)칵테일 (메뚜기란뜻)
3분의1 그린페파민트, 3분의1 화이트 크림 드 카카오, 3분의1 밀크 또는 크림, 얼음→세이카→칵테일글래스. 매우 감미로운 여성용. 산뜻한 그린 빛이 돋도록 만들것.

★김렛트(Gimlet)칵테일 (송곳이란뜻)
4분의3 드라이진, 4분의1 라임 또는 레몬쥬스, 설탕 한숟가락. 얼음→세이카→삼페글래스. 잘게깬 얼음 약간과, 탄산수로채운다. 남성용.

★그린 파이어(Green Fire)칵테일
3분의2 워카, 3분의1 그린샤트루스. 얼음→세이카→칵테일글래스. 매우강하다. 남성용.

★몬테 칼로(Monte Carlo)칵테일
2분의1 위스키, 2분의1 베네딕틴, 얼음→세이카→칵테일글래스. 단맛이돌고 중후한 맛이있다.

★모스코우 뮬(Moscow Mule)
30밀리리터 워카, 라임쥬스 한숟가락 또는 레몬쥬스 한개분을 탐블러에 넣고 얼음을 가하여 진저에일로 채운다.

<토론토니안의 의식구조> 마지막회

온타리오 경제에 비관적

개인적 경제사정에는 만족표시

이토비콕에 사는 한 부부는 지금 캘리포니아로 이사가는 문제로 한창 토론하고 있다.

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캐나다가 싫거나 이웃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다. 온타리오 경제조건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토론토주민 414명을 대상으로 한 갤럽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온타리오주의경제조건에 만족하는 토론토니안들은 겨우 35%로 지난2월의 63%보다 훨씬 떨어진 숫자로 온타리오 장래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내려갔다.

대학에 들어갈 연령의 세자녀를 둔 이토비콕 부부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더 많은 수입이 필요, 파트타임을 하던 아내가 풀타임을 해야 할 판이다.

"캐나다는 전과같이 기회가 많은 나라가 아니다"라고 54년에 이태리에서이민온 이들부부는 말한다.그들은 캐나다는 아직도 형편이 나은 국가이다. 경제조건이 날이 갈수록 악화, 그들의 친척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토론토니안 20명중의 1명(5%)은 향후 5년간 온타리오를 떠날 의사를 비치고 30%는 다른 곳으로 이주를 고려해보았다.

이러한 경향은 젊은층에서 더욱높다. 18~24세 의 연령에 해당하는 토론토니안중 18%가 앞으로 5년이내에 이주할 생각이고 41%가 이주를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토론토니안들은 그들의 경제적사정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도는 상당히 떨어졌다. 금년 2월조사에서 78%가 "아주" 혹은 "보통이상"으로 만족했으나 8월현재 오직61%만 그와같은 만족을 표시한다.

향후5년간 그들 개인의 경제전망에 대한 낙관론도 마찬가지로 줄어들어 2월의 78%에서 8월현재 72%가 되었다.

향후 5년간 무엇이 중요한 개인문제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57%가 재정문제,특히 인플레이션이 그들의 가장 걱정하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바라는 질적 생활수준의 성취, 실업문제등의순서로 나간다(자세한 것은 도표참조)

18~24세 연령층은 온타리오의 장래와 자신들 개인의 장래에대해 다른 연령층보다 훨씬 낙관적이다.

18~24세 연령층의 향후 5년간 개인문제 통계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실업(Unemployment)에대해 많은 걱정을 하는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37%가 졸업후의 취업에 대해 걱정을 표시했다.

이번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토론토니안들은 그들개인의 경제사정에 기본적으로 만족하고 개인적 전망에 대해서는 아주 낙관적이나 온타리오 경제조건에는 비관적이다.

18~24세 연령층중 13%가 온타리오를 떠날생각을 하고있고,41%가 이주를고려해 봤다는것은 토론토니안들의 경제적 염려를 단적으로 증명해 준다. 다른곳으로 이주를 생각한 사람들중 미국(27%)이 가장 그들이 이주하고 싶은 곳이다. 24%는 캐나다 서부지방으로 가기를 원한다. 그중 14%는 브리티쉬·콜럼비아,13%는 알버타로가기를 희망한다.

향후 5년간 경제전망

	18-24	25-39	40-64	65+	18-24 대학	18-24 Non-U
온타리오						
매우낙관적	11%	5	6	7	16	9
조금낙관적	46	31	33	36	42	48
조금비관적	29	46	34	33	29	29
매우비관적	11	13	21	17	13	10
불 확 실	3	5	6	7	–	4
본인						
매우낙관적	30	22	15	7	42	26
조금낙관적	58	58	50	47	52	59
조금비관적	4	14	25	30	3	4
매우비관적	5	3	4	3	3	6
불 확 실	3	3	6	13	–	4

중요 개인문제들 — 향후5년간

"향후5년간 무엇이 개인적으로 당신의 문제가 될 것인가?"

18-24	합계	Univ	Non-U
재정, 인플레이션	57%*	43%	51%
바라는 질적 생활수준 성취	18	16	13
실업	17	37	32
주택	13	11	19
건강	9	–	1
노년문제(은퇴, 죽음)	7	3	–
가정, 결혼	6	–	11
교육	5	16	3
과학기술 –공해/에너지 위기	3	7	1
사회문제	3	–	1
기타	1	–	–
불확실	13	16	17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81)

팔리·모왓 원작, 원재훈 옮김

돌으소서 하늘에 계신검은신이여! 들판에서 길 잃은 불쌍한 바보를 굽어보소서! 폭풍이 지나간 후에 천지는 조용하기만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읍니다.그래서 나는 돌아서서 개와 아내가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왔읍니다. 그런데 칼룩이 갑자기 "뒤를좀 돌아보세요"하고 외쳤읍니다. 뒤돌아 보니 내가 서있는 산으로부터 지평선을 향하여 한마리의큰 까마귀가 똑바로 날고있는 것이 보였읍니다.우리는개들을 돌려 그 새를 따라서 이틀을 왔더니 바로 여러분이 살고있는 리틀힐스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시는바와 같이 이 못난 알렉카우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읍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요.다음에 사슴이 이땅에 다시올때에는 잊지않고 까마귀들에게 작은 선물을 주어서 더 이상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을겝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글루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이야기로 꽃을 피우며,모두 기쁘게 생각했다. 그리고 모두들 마음속으로 사슴이 봄에 되돌아오면 대접을 잘할것을마음먹었다.

그런다음 오네콰우가 북을 내오자,한사람이 말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기시작했다

노래는 다음 새벽이되어 이땅에 여명이 터올 때까지 계속됐다. 폭풍은 이미 지나가서 그런일이 있었던가 의아할 정도로 해는다시 겨울하늘가에 싸늘하게 걸려있었다. 이것이 두번째날에 일어난 이야기의끝이된다.

그해 벨리카리가 처음으로 남의 도움없이 덫을 놓아 여우를 잡게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선택한곳에 덫을 놓도록 5개나 주었다. 덫을 처음으로 놓아보기 때문에 물론 실수가 많았다. 그래서 대부분의덫이 늦은겨울까지 미루어져서 봄이되어 눈이녹을때까지 걷어오지 못했다.

그해는 사냥이 별로좋지 못했다. 헤콰우의 이글루에는 먹을것이 충분했지만 봄이오기전에 다른 캠프에서는 몇명이 죽어갔다. 특히 늙은 헤콰우의 아내 에프트가 식량이 매우 부족할때 벨리카리의 동생이되는 사내아이를 낳게되어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은 순산이 아니었다. 벨리카리는 어머니가 침상에서 상고를 겪을때 이웃 부인이 어머니의 뻗힌 손을 꼭 누르고 있는것을 지켜보았다. 또 다른부인은 에프트의큰배를 눌러 아직 배속에 있는 어린애를 자궁밖으로밀어내는것을 보았다. 그런후에 에프트가 산후가 좋지않아서 벨리카리와 그의 아버지가 그 이글루에 통 들어가 볼수가 없었다. 한달동안 에프트는 감옥같은 그녀의 이글루를 떠나지못했고,모든음식이 문밖에서 마련되어 산모와 아기에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용기로 넣어졌다. 벨리카리와 그의 아버지는그 기간동안 배고픔이 정말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어느덧 남쪽으로부터 봄이오자 날씨는 변하여 점점 따뜻해 졌다.

이제 겨울은 그럭저럭가 버렸고, 내 이야기의 세번째 날에 벨리카리가 겨울이가자 그가 논 덫을걷으러 산위로 올라가 사냥을 하게되는 이야기다.

그가 강 북쪽에있는 산등성이를 걸어 올라갈때는 유월이었다. 벨리카리는한 주일동안 먹을양식을 준비해 갔다.

1948년6월 아직 우리가 윈디베이에 머물러 있을동안 앤디는 나도 생물학자라고 생각할만큼 과학이라는 대의 명분을걸고 얼마나 사슴을 연구했는지 모른다. 나는 들판의 이끼와 지의류안에서 사는 작은젖먹이 동물을 수없이 채집을 하므로써 나의 양심을 과학자인 것처럼 위로하고 말았다. 채집도구로는 36개의 보통쓰는 쥐틀을 여기저기 광범위하게 놓고다시 찾기쉽게 빨간 헝겊 조각을 깃대처럼 달아놓았다. 하루는 나는 오텍에게 쥐틀을 보러갈때 그중의몇개만 살펴봐 주도록 부탁을 했다.

(계속)

ORIENTAL PALACE LTD. 오리엔탈파레스

조이스 무용단

조이스(JOY'S) 무용단은 유럽을 거쳐 처음 북미에 도착했읍니다. 10월15일부터 오리엔탈 파레스에서 첫공연을 갖게 되었음을 알리며 바쁘신 중에도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풀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여러분을 모시고저 하오니 많은 성원을 바라겠읍니다.

박 인 순 배

영업시간 : 저녁6시~새벽1시
*연말파티 예약 접수중
*캔토니스 중국요리

529 BLOOR ST. W. TORONTO, ONT.
전화 : 533-3545~6, 533-1500

실협 뉴스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회 장 : 이 형 인
부 회 장 : 임 철 원
〃 : 김 명 정
이 사 장 : 김 태 진
부이사장 : 전 윤 식

제5차 정기이사회소집

오는 11월6일(금)하오6시30분 돈밸리 할리데이-인 에서 제5차 정기이사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정기총회전에 마지막 회의가되는 이번 제5차 이사회는신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확정짓고, 결산과 감사보고를 처리하게 될 것이며, 기타 분과위원회 활동들을 보고하는 안건이 토의될것이다.

이사회가 계획되기전 저녁을 함께나누는 시간이준비되어 있으므로 각 이사들은 시간을 맞추어 나오시기를 관계자들은 바라고 있다.

문예작품 입선작 시상식
입상자들에 상패·상금

협회가 최초로 시도한제1회 문예작품 현상공모가 15일(목)하오5시 협회사무실에서 입선작 1,2,3 등의 당선자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조촐한 시상식을 가짐으로써 일단락 되었다.

김명정 부회장 사회로 전 응모작품과 명단이소개되었으며, 이어 이형인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먼저입선되신 세분에게 영광의상패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문예작품 현상공모는 협회가 그동안걸어온길과 회원들의 호응도를 측정하려는 뚜렷한 방향이있어 오랫동안 공모광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구멍가게를하다보니 너무나 시간에 쪼들리어 10여명의 응모자중에서 입선자가 전부 여성들이라는것을 볼때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고, 독서 한장 재대로 할수없는 각박한이민생활임을 생각하며, 이석현 선생의 심사평을 읽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웠던것을 고백합니다. 어떻든 그런생활 속에서도 펜을 놓지않고 계속 분발하신 분들이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신 세분이며, 이분들이야말로 정서함양에 앞선 분들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한 감회를 표현할수 없이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들을 심사해서 뽑아주신이석현 선생님, 조정대 이사님, 그리고 임원들과 직원들, 각교포기업체의 후원에 다시한번 감사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그다음 심사평을 써주셨던 이석현 문협고문은 격려의 말을 해주셨다. "여러분이 많은분들 중에서뽑혔다는 영광의 뜻은 우선 문제에 뛰어났고, 테마와줄거리를 찾아 그것을 전개하는 기술면에서 앞섰고, 언어, 문장선택, 그리고 배열, 소재등을 다루는데에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오늘의 감격, 감동이 이 자리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미 출발신호가 울린것이니 계속 분발해서 작품활동을 계속하시기를 당부하고 싶읍니다. 글은 예술이며, 특히 문학예술은순수하고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 소질이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춘문예작품 같은것에도 과감히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속 작품활동을 거듭 부탁합니다."

이어서 상패와 소정의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입상되신 원옥재, 김영희, 신숭숙 세분은 모두 주부들이며, 남편과함께 스토어를 경영하면서 이민와서 최초의글을 썼다는것이 공통점이었고, 그 작품들의 구성은 모두가 자기체험이 바탕이되어 이루어진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작품들이 실협뉴스를 통하여 연재되면 모든 회원들이 공감할수 있는 소재라는데에 이번 공모사업의 시도가 이루어졌다고 할수있다.

입상자중 신숭숙씨는 배경락 이사의 부인으로 전가족이 동원되어 축하하는 광경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으며, 가작에 당선된 이혜숙, 이명숙씨는 상패를 본인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 한다.

식이 끝난 후 참석자 일동은 동궁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들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전 캐나다 이태리안 협회에서도

한편 작년말 남부이태리 지역의 지진재해 기금모집을 전국적으로 펼쳐왔던전국 캐네디안 이태리인회의 토론토지역회의 안젤로·델피노 회장은 그 기금의 용도에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한인실협인협회의 협조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협회는 작년 12월1일 $300의 도네이션을 한바 있다.

메트로경찰협회 감사의 편지

지난 9월30일 임무수행중 불의의 흉탄에맞아 순직한 필시·컴민스(Percy Cummins)순경의 유족기금에 $100의 도네이션을 보낸바있는 협회에 메트로경찰 협회장 폴·월터(Paul Walter)씨 명의로 감사의 편지가 13일자로 왔다.

그 내용은 이 기금들이 앞으로 유족들의 자녀교육비와 특별 치료비에 충당되게 될 것이며, 이러한따뜻한 도움은 경찰들의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알려온 것이다.

애기의 샘

거절없어

회사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부장이 과장에게 물었다.

「이번에 자네한테 보낸 신입사원은 쓸만한가?」

「예. 능력은 있는데, 우리회사에 오래 있을는지 어떨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점에서?」

「일을 시키면 잘 해냅니다. 그런데 짬만나면 신문의 구인광고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부장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그런건 걱정할 필요없어. 자네도 결혼하구 얼마안된 무렵에 신문의 구혼(求婚) 광고를 곧잘 훑어다 보잖았어? 그것과 비슷한 심리(心理) 야.」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광고는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문의처
본 사
광고국
533-2361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협회 고문 변호사

온타리오주 상법 권위자

CATZMAN & WAHL

Barrister & Solicitors

133 RICHMOND ST. W. (University와 Osgoode)

자세한 문의 : 362-1623 MISS 박이나 MR. LEVINE을 찾으세요.

제5차

정기이사회 소집공고

회칙 15조1항에 의거 81년도 제5차 정기이사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11월6(금요일)
하오6시30분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ast

안 건 : 1.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2. 감사보고
3. 분과위원회 보고
4. 기타사항

※저녁식사 제공함.

1981년10월19일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이사장 김 태 진

각종 썬 그라스

7년간 봉사해온 썬그라스계의 권위공급회사

CAMELOT IMPORTS LTD.

250 Wildcat Rd., Downsview, Ont.

전화 663-2972 Mr. Smith

한인실업인협회

정부회장 입후보등록공고

회칙 제6장 2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부회장 입후보 등록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선 거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오후4시
선거장소 : Holiday Inn Don Vally
1250 Eglinton Ave. East(Wynford Dr에 입구있음)
등록마감 : 1981년11월11일(수요일) 오전12시
등 록 금 : 각 입후보당 $1,000(은행보증수표, 일체반환없음)
후보자격 : 회칙 제2장 4조1항에 의한 정회원
등록구비서류 :
가. 이력서2부(명함판 사진1매씩)
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사본1부
다. 추천서 1부(선거관리위원회 서식에 의한 정회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추천서)

1981년 10월 9일

한인실업인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국 영

한인실업인협회

정기총회 소집공고

본회 회칙 제3장 제7조 제3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1981년도 정기총회를 소집 공고합니다.

— 아 래 —

시 일 : 1981년11월27일(금요일) 하오4시

장 소 : Don Vally Holiday Inn
1250 Eglinton Ave. E.
(Wynford Dr. 에 입구있음)

안 건 : 1. 과년도 사업보고및 결산승인
2. 신년도 사업계획및 예산안
3. 이사회 보고
4. 감사보고
5. 정 부회장및 이사선출
6. 회칙개정
7. 기타안건

1981년10월9일

한인실업인협회장
이 형 인

민중신문사배 바둑대회

일 시 : 10월24일부터11월29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대국

참가자격 : 한국기원회원에 한함

참가신청 : 수시로 접수

참 가 료 : $20

상 품 : 우승, 2등, 3등 각각 트로피단, 우승 트로피는 3년 연승자에게 영구히 수여함.

기 타 : 대국마감일인 11월29일까지 대국을 끝내지 못한 경우에는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리함.

주 최 : 민중신문사
진 행 : 한 국 기 원

1981년10월19일

한 국 기 원

통닭구이집

한국의 얼이 담뿍담긴 명물중의 명물, 빈대떡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기구이 통닭과 함께 특별봉사합니다.

아침1시까지 문을 열고 있사오니 바쁘신중이라도 일차 발걸음을 658 Bloor St.W.로 돌려 보시지 않으렵니까.

시간의 구애를 받고계시거든 537-0432로 전화다이얄을 돌려오십시요.

배달도 가능합니다.

주님의 가호속에 평강을 빌며—.

빈대떡 주인 백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THE KOREA TIMES

한국안내광고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6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미시사가 지역
☎: 823-2445(R), 822-4895(B) 미스타 심

파트타임 여자헬퍼구함:
월~금 하오3시반~하오9시반, 토 상오8시~하오6시
☎: 598-1140 (칼레지 써브웨이 안에 있음)

저녁 풀타임 또는 파타임, 점심 파트타임
웨이츄레스 구함
☎: 757-6334

풀타임 남자헬퍼구함, 경험자에 한함:
오후3시~밤12시, QUEEN과 DUFFERIN
☎: 534-3338(아침9시~3시까지 전화) 미세스 김

봉재사 급구(고급 브라우스, 스카트, 바지)
시간당 $4 이상
292PARLIAMENT(DUNDAS에 가까움) ☎: 362-2300

세일즈 하실분 구함:
GOOD코미숀(오전7시~오전10시 연락바람)
☎: 492-7505

경험있는 가게 헬퍼구함:
영·스트릿과 에그린톤지역
☎: 483-7444

여자 캐쉬어 구함
시간당 $4
☎: 638-2553

주말에 가게에서 일할 경험있는 파타임
스카보로지역 학생헬퍼 구합니다.
☎: 267-4770

얌전한 아기를 보아주실분 구함.
입주 또는 출퇴근 가능.
SCARB. E. ☎: 284-3031

한국일보
식품점서 판매중

매매및 양도

개인집 팝니다: 11¾% 몰개지 2(4개 화장실과 목욕탕)
2가족 싸이즈도됨. $10,000다운(DAVENPORT & SYMINGTON) ☎: 536-8506

스토아 매매
주매상: $4550
☎: 523-7101(해밀톤)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주40시간 이상)
MAIN & GERRARD ST. 지역
☎: 691-3363

핀볼 기계와 비데오 게임: 액쎌런트 비즈네스 매매
☎: 767-7998, 762-5455 OR 245-5544
PAGER #4701

베커 프렌차이스 매매:
좋은 비지네스 직접내방원함(FINCH & BIRTCHMOUNT)
(스카보로지역) ☎: 293-1893 (CALL 9AM~3PM)

스토아달린 빌딩 팝니다.
☎: 653-4633
Mrs.코메스

매매(PINBALL MACHINE)
성능좋은 ELECTRIC혹은 ELECTRONIC TYPE 14대
가격 개당 $275~$475.
☎: 266-5037

성업중인 햄버거 샵 팝니다
☎ 530-0748 DAVID

오릴리아지역·매상좋은 비지니스:
그로서리·바라이어티·미니마켙, 연매상 35만달러 이상, 3베드룸 살림집및 2베드룸 아파트 있음, 포스트 오피스.
문의: ELEANOR TODISH (1) 862-0788 ext. 53
A. E. LEPAGE(ONT.) LTD.

빌딩매매: ASKING $490,000, 4개 아파트와 음식점 최저 다운은 $100,000.
464 SHERBOURNE ST. 직접내방 요함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7만+스탁
☎ 533-2400 미스타 김

매매 ●도나스 캐비넷 셋트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토랑15년 리스
☎ 535-2804 미세스 김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주매상: $3500~4000 리스: 4년
ASKING: 29000+스탁(좋은 OFFER를 줌)
주소: 1430 DUNDAS W.
☎: 531-0773 Mr.김 (직접내방바람)

몬트리얼이나 유럽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 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메뉴팩츄얼 재고정리 세일:
자꾸, 단추, 합사, 씽글바늘재봉틀,
아이들 겉옷들.
148 AUGUSTA AVE. 2층
☎: 366-5439

성업중인 몬트리올에 위치한 그로서리
(맥주와 포도주 취급) 스토아를 급매코자함
주매상: 5천3백달러이상 보장, 권리금: 4만5천 +스탁(만달러 정도), 현금: 2만5천
☎: (514) 486-0944
(95% 영어지역)

A. M. F. M. 카셑(자동차) $85부터
CITY AUTO RADIO SALES SERVICE INSTALLATION
102 TURBINE DR. WESTON, ☎: 743-5669

일본식 식당과 SHOGUN라운지 매매:
일본식 식당: 85좌석, 라운지: 105좌석,
모든 시설이 완비되었으며 개업한지 3개월 되었음,
동업자나 사실분은 Collect Call로 연락바람.
HALIFAX, N. S.
☎: 집(902) 443-5789, 식당: (902) 429-6155
라운지: (902) 429-6955. MR. KIM

DRY CLEARNING PLANT FOR SALE
2 STORES GOOD INCOME
☎: 922-2241(ROSEDALE AREA)

구 혼

"구 혼"
냉동기술 1급 자격증 소유한 31세의 대졸남성
정숙한 여성원함.
☎: 654-1922. 김 윤 수

분 실

시민권 분실공고:
박광순(PARK, KWANG SOON),
☎: 534-0228, 1395 DAVENPORT RD.

매매 부동산

복덕방ROYAL TRUST CO. 로얄·트러스트
☎: (B) 752-3111, (R) 298-2546
주택전문 곽 석 용

인 쇄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 244-2301

인벤토리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가게를 매매 하시려고요??
(한국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533-2361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1454 DUNDAS ST. E.-SUITE 110
MISSISSAUGA 전화: 273-7300

카펫·카텐

가나안카텐·카펫 브라인드 SHADE
2390 LAKESHORE BLVD. W.
☎: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카펫 크리닝: 카펫·소파·췌어·자동차시트
☎: 839-6277 박 최신 스팀삼푸 크리닝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바우종합광고회사
간판부: 각종전광/아크릴간판, 현수막, 윈도우사인
그래픽디자인부: 원색Catalog/Brochure/팜프렛/포스터/상업도안/신문광고디자인 제작대행
인테리어디자인부: 일반상점실내장식, 점포설계 상담및 시공
인쇄부: 특수인쇄/도서(책자)편집출판. '82년도 호화판 한국달력주문제작중
T. P. ADVERSITING GROUP
OFFICE: 637A BLOOR ST. W. TOR.(은하보석상 옆)
공장: 287 Horner Ave. Etobicoke.
전화: 535-0647, 465-1722 대표: 송 관 현
시외지역 전화문의및 무료출장견적 환영

미 용

헬렌미용실 미세스 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 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킴스 미용실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시설및 수리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6 전기시설·보수,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438-3795 김 영 호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공장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상하수도 전기제품 각종유리
PAINT 수리및 시설
☎: 535-4441 미스타·김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조율 600 PIANO SERVICE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62 김 수 용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님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정·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87[illegible](R) 허소피아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364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illegible]-3024(B) 226-[illegible](R)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255-2111(B), 828-5001(R)

여행사

한 국 여 행 사
593 BLOOR ST. W.
(B) 531-4607
(R) 487-8088 성 낙 윤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한 방 원

서 울 한 의 원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진료과목: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
주소: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Dixon)
☎: 247-9347 한의사: 김 장 석 (왕진함)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진풍웅담●녹용●우황청심환●사향●경명주사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일주일 내내 아침10시~저녁8시 (일요일도 OPEN)
차이나타운내(던다스×스파다이나)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9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숙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새한칼라 현상소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630 BLOOR ST. W. TOR.
☎: 535-7772

SOME JEWELLERY 쏘메쎄라
●각종보석주문(공장도가격), ●옛보석을 새보석으로
●디자인, 보석수리(일본말 환영) ☎: 225-4641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100% 효과보장
☎: 368-9018

니폰·비데오 센터: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찌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학

한국일보
광고문의
대표전화: 533-2361
언제 어디서나 접수하겠읍니다.

돌개바람 불다 (81)

출입문 안의 비좁은 현관으로 들어 서서 나는 방문을 닫고 섰다。눈이 차차 방안의 어둠에 익숙해졌고, 어렴풋하게나마 방안의 윤곽을 구별할 수있었다。그는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 누워서 자고 있었으며、책상일 듯싶은 물건은 창밑에 밀어 붙여져 있었다。희망했던 바대로 유장훈감독은 다른 방을 얻어 나간 모양이었다。

그러나 어둠속에서 나는이런 것들을 단한번에 알아낸 것이 아니었고、그의 잠든숨소리 까지 귀를 세우고 오랫동안 천착한 끝에 확인한 사항들이었다。분명히 그가 혼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상 나는 더 망설일필요가 없었다。신발을 벗고나는 요를 위로 올라섰으며、웃옷을 벗고 미끄러지 듯이 그의 옆에 누웠다。

간밤과는 달리 그의 입에서는 지독한 술냄새가 풍겼다。잠자는 버릇도 결코 그답지는 않았으며、거의 십분간격으로 팔을 뒤채었다。그가 돌아누우며 휘두르는 팔에 나는 가슴과 얼굴을 한차례씩 맞았다。지난 밤처럼 그를 깨울까도 생각했지만、그리하여 그의 엉뚱한 잠버릇의 포학(暴虐)으로부터 벗어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코를 쥐는 등 간밤에 했던 똑같은 행위는 내게서 이미 흥미가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나의 내침을 예상하고도 잠든 몸마저 이기지 못할 만큼 술을 마셔 버린 그가 나는 밉기도 했다。그러나 그에게 그럴만한 이유는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으며、그를 용서하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런 단순한 기분으로 나는 그의 고삐가 풀린팔과 코고는 소리、그리고 술냄새를 피해 할수 있는한 그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그리고 그렇게 태평히 잠들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는데、나는 곧 깊이 잠들어 버렸다。

찻집에서도 잠깐씩 눈을 붙였고、여관에 돌아와서는 두어시간 잠부터 자두었는데도 불구하고、해운대를 떠나면서부터 누적된 수면 부족은 그쯤으로 메워질수 없었던모양이었다。그것은 잠이 아니라 차라리 가사(假死)상태였다는 표현이 어울릴정도였다。잠결에 나는 그가 내몸을 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슴푸레하게 느꼈지만 깨어날수조차없었다。이렇게되면 이것은 짓밟히는게 아닌가、하는 종잡을수 없는 느낌으로 나는 한두차례 저항을시도했던 듯싶기도 하다。그러나 깊은 수마(睡魔)그것마저 끝 무위로 전락시켰으며、그가 언제 내 위에서 내려갔는지도 나는 모를지경이었다。

내가 깨어난것은 이튿날아침이었다。창문으로 비쳐든 햇빛이 얼굴에 떨어져 나는 쉽게 눈조차 뜰수없었다。그런데 그런 내 불투명한 의식을향해 무엇인가 이상한 예감하나가 날개를 퍼득이며 달려들었다。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질러버린 사고、일테면 아끼는 그릇을 부엌바닥에 떨어뜨려버린 느낌과 비슷한 불안감을 동반하고 있었다。나는 가만히 내 옆의 남자를 돌아보았다。아니나 다를까、그는 그가아니라 유장훈 감독이었다。너무도 놀라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듯한 느낌이었다。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수 있단말인가、어떻게…숨도쉬지 못하고 잠시동안 나는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유장훈감독은 진작부터 깨어있었던지 내가 흠칫 놀라는 기척을 놓치지 않았다。그가 비스듬이 윗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깨었소?그런데 어떻게 된거요?』

나는 말하지 않았다。잠든체하며 유감독이 옆에있는한 영원히 깨어나지않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나는 초조하게 생각했다。

모눈종이 위의 生 <230>
趙善作 作
金光培 畵

중앙 AUTO-SERVICE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532-3946 김창세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預金증서 담당刑事가 빼돌렸다

"目錄작성때 3枚은닉"自白

朴서울市警局長발표 趙仁宰씨出頭 진술로確認

제일은행退溪路지점에서 발견된 尹景花씨(72·서울龍山區元曉路1街128의14)의 정기예금증서는 尹씨피살사건을 수사했던 서울龍山경찰서수사과 형사계 河英雄순경(40·서울龍山區元曉路1街26의36)이 훔쳐낸것임이 밝혀졌다.

尹씨명의의 정기예금 인출기도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17일 이사건에 관련, 지명수배를 받자 자진출두한 趙仁宰씨(50)로부터 『문제의 예금증서는 河형사의 친구이자 정보원인 徐광석씨(40)의 조카 徐호일씨(26)를 통해 전해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河형사를 연행, 혐의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하오 朴在植서울시경국장이 공식 발표했다.

경찰에서 河형사는 『尹노파피살사건이 알려진 4일후인 8월8일 현장수사반으로 투입된후 尹노파명의의 예금통장을 보관해왔는데 8월말께 예금통장리스트를 작성하면서 5백50만원상당의 예금증서3장을 빼냈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河형사는 이를 10월초 친구 徐광석씨(40)에게 『현금으로 찾아주면 상당액을 주겠다』고 제의, 徐씨는 조카 徐호일씨를 통해 趙씨에게, 趙씨는 『다른사람을 시켜 찾아보라』는 부탁과 함께 李泰鉉씨(51·건설하청업·서울麻浦區孔德洞38의159)에게 부탁했고 李씨는 이를 다시 최종하수인 陸秉龍씨(62·무직·서울西大門區弘濟4洞13의50)에게 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예금인출기도사건은 당초예상과는달리 尹景花피살사건과는 전혀 무관한것으로 일단락됐다.

인出劇계보

- 예금증서 절취 — 하영웅(40)용산경찰서 형사
- 환금 지시 — 서광석(40)하형사 정보원
- 환금부탁 — 서호일(26)서광석의 조카
- 공사담보로 제공 — 조인재(50)전기하청업 (조문재43, 조인재의 동생)
- 환금중간책 — 이태현(51)건설하청업자
- 환금 하수인 — 육병룡(62)무직

龍山署長·捜査課長 職位해제

尹甲富 예금證書절취사건 引責

한편 서울시경은 17일하오 河英雄형사의 尹노파 예금통장 절취사건과 관련, 관할 서울龍山경찰서장 李尚漸총경과 金鍾潤수사과장, 楊雲錫형사2반장을 이날자로 직위해제하고 河英雄형사는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龍山경찰서장 후임에는 치안본부 외사과 徐正福총경, 수사과장에는 金相明경감, 형사2반장에는 京里 경비과장을 각각 발령했다.

"온국민에게 罪悚"

李龍山署長 사표

龍山경찰서장 李尚漸총경은 부하직원인 河형사가 예금증서를 훔친것이 드러나자 『면목이 없다. 상상도 못할 청천벽력같은 결과』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李서장은 『부하들이 3일동안이나 보고를 하지 않아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일생을 경찰에 몸바쳐 왔고 이제 정년을 눈앞에 둔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다』며 『공무원의 한사람으로 온국민과 전국의 동료경찰관들에게 얼굴을 들수없다. 사죄하고픈 심정』이라고말했다.

한편 李尚漸서장은 이사건에 대한 책임을지고 이날하오 사표를 제출했다.

유엔駐在 美國大使 北傀파티 잘못참석

【워싱턴16日=曹淳煥특파원】 진·커크패트릭 美유엔대사(女)가 북한의 유엔옵저버대표단이 14일밤 유엔에서 연 한파티에 잘못안내되어 참석, 미국무성이 해명하는 소동을 빚었다.

애초 커크패트릭대사의 파티참석은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는데 이통신은 커크패트릭대사의 14일 일정표에는 북한파티참석은 기재돼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무성 매너드동북아 대변인은 16일 커크패트릭대사는 지난14일밤 북한옵저버들이 연파티가 있었던 유엔빌딩 같은층(4층)의 한파티에 참석했다가 잘못안내되어 부주의로 북한파티장에 들어갔었다고 말했다.

稅務署員 재량권규제

成長저해要因 개선審委확정 各稅法의 기본通則 개정

정부는 17일상오 成長發展沮害要因개선審議委제3차회의를 열고 46개 주요과제중 請託배제를 위한 제도적 개선, 중앙및 일선 행정기관의 위원회정비, 산업災害보상보험제도의 개선방안등에 관해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주요개선사항을보면 稅務공무원의 裁量權을규제하는내용의 國稅基本통칙과 各稅法의 기본통칙을 제정하고 刑事사건의 처리를 둘러싼 청탁을 배제키 위해 告訴고발사건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술조서작성자와 사건처리담당자를 분리하며 가족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할때 범죄사실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는것등이다.

개선심의위는 46개 주요과제중 ▲民法과 商法의 정비 ▲거주지중심의 行政제도로의발전 ▲토지제도의개선 ▲행정법령법칙제도의 개선등 6개과제는 82년까지작업을 계속하고 나머지 40개과제에대한 작업은 年末까지 완료, 필요한 개정법률은 81년정기국회와 82년국회에 제출하는한편 대통령령이나部令, 행정규칙등은 연내개정키로 했다.

축소 長次官級 就業 적극주선

조직개편과관련, 축소대상職位에있는 長次官과 1급등 政務職과 非經歷職 공무원들에 대한 就業을 적극 주선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17일 『정부기구 축소로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는 1級이상 고위공무원 43명은 公職을 떠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들이 대부분 오랫동안 공직에서 국가에 기여한바가 많으며 비위와 관련돼 물러나는것이기 때문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들의 취업을 주선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各部處별로 이들離職공직자들의 진로에 대한 희망등을 수렴할것으로 알려졌다.

中東戰의 英雄 다얀死亡

심장마비로 이스라엘國葬

◇모셰·다얀

【텔아비브16日 AP·UPI=聯】 이스라엘국방상과 외상을 지낸 中東戰의 영웅 모셰·다얀장군이 16일밤 8시30분(한국시간 17일 새벽3시30분) 텔아비브郊外 텔·하쇼메르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急逝했다고 이스라엘정부가 공식발표했다. 享年66세.

지난67년과 73년의 두차례 중동전당시 국방상으로서 이스라엘軍의 전격적승리를 안겨준 이스라엘의 영웅이자 對이집트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의 토대를 마련한 장본인인 다얀 전외상은 15일 흉부의통증과 호흡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은지 하룻만인 유태교 안식일 개시 직후에 서거했다고 텔·하쇼메르 병원장서리 볼레슬람·골드만박사와 다얀전외상의 의붓딸 누리트여사가 말했다.

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 대변인 유리·포라트씨는 다얀전외상 急逝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베긴수상이 다얀前외상의 國葬式을 오는18일 거행토록 지시했다고 발표하면서 다얀前외상의 遺骸는 그가 태어난 집단농장 키부츠 定着村인 나할랄에 매장될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平和협상에 큰기여 埃, 다얀別世哀悼

【카이로16日 聯】 이집트정부는 16일 이스라엘국방상 및 외상을 지낸 모셰·다얀장군의 별세에 애도의 뜻을 표명했다.

全대통령 玉浦造船所 준공식致辭

"造船공업 제2도약 主導를"

技術축적·國産化率 提高로

【玉浦=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17일 『造船공업은 앞으로 우리경제가 제2의跳躍을 이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담당하게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造船공업의 이러한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는 延拂수출 금융의확대등 각종 지원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全대통령은 이날하오 慶南巨濟郡長承浦邑 玉浦에서있은 玉浦造船所준공식에참석, 致辭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活路를 개척하고 안정기반을 다지면서 성장을 지속해나가는데 있어 선택의 폭은 결코넓을수가 없는 것이며 선택의 폭이 좁다해 우리는 절대로 東手無策일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比較優位의 원칙에 따라 경쟁력있는 산업을 중점육성하고 기술을 축적하며, 品質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生産性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對外지향적인 경제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全대통령은 또 『우리 경제는 지난60년대와 70년대에걸쳐 일부부작용과 試行錯誤도 없지않았지만 수출主導의 고도성장정책을 추구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과정에서 造船工業은 수출증대는 물론 雇傭확대와 기술축적등의 면에서 매우 값진 기여를 해왔다』고 지적하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있는 경제및 사회발전목표를 완수하려면 造船공업의 계속적인 육성은 긴요한 과제중의하나가 아닐수없다』고 강조했다.

海軍기동훈련參觀

全대통령 한국型전함타고

【OO基地=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17일상오 南海岸해상에서 실시된 해군의 艦隊기동시범훈련을 2시간동안 參觀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함께 韓國형전투함인 蔚山艦에 승선, 시범훈련해상으로 항해하면서 함대지휘관으로부터 기동훈련계획등에 관한 보고를받은뒤 艦橋에 올라 이번 훈련에 참가한 驅逐艦·高速艇등 해군함정의 해상사열을 받고 艦隊群의 해상보급훈련을 살펴봤다.

全대통령 內外참석 공사관계자를 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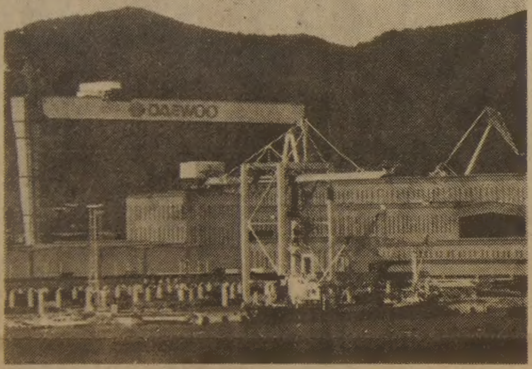
【玉浦=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17일 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慶南巨濟郡長承浦邑에서 거행된 大宇造船玉浦造船所종합준공및 제1·2號船 命名式에 참석, 관계자들을 치하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준공식에 이어 金宇中大宇그룹회장 안내로 大宇造船이 최초로 건조한 2만2천5백톤級화학운반선인 바우·파이오니어와 오스텐저호를 영부인 李여사의 테이프절단으로 命名과 함께 進水시켰으며 大宇造船이 건조한 세계최대규모의 크레인 골리아스를始動시켰다.

이어 全대통령은 현장사무소 건물내에있는 전시실에들러 공장鳥瞰圖와 외국에서 수주한 각종선박의 모형들을 살펴보며 金회장으로부터 공장立地시설, 공장사업계획등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全대통령은 또 사무실2층에서 베풀어진 리셉션에 참석, 船主, 외국인사 2백여명등 모두 8백여명의 참석자들과 환담했다.

全대통령내외는 88올림픽고속도로기공식과 해군기동훈련및 玉浦造船所준공식에 참석한뒤 17일 하오 歸京했다.



◇2萬t級 接岸할 안벽 2만톤급 선박의 接岸이 가능한 길이 1백m의 玉浦조선소 하역岸壁。

大宇 玉浦造船所 어제준공

【玉浦=南巨濟郡주재기자】 大宇造船의 玉浦조선소 준공식이 17일하오 6백여명의 내외인사가 참석한가운데 慶南巨濟郡玉浦灣 현지에서 거행됐다.

내외자 3천2백75억원, 연인원 6백만명이 동원돼 8년만에 준공을 보게된 玉浦조선소는 연산 1백20만톤규모의 조선능력을 갖추었다.

이로써 우리나라 造船능력은 현재의 2백80만톤에서 4백만톤으로 늘어나 세계 5위권(종전8위)의 조선강국으로 부상했다.

金融 7法改正

은행民營化 大型化맞춰 재무부, 常委서보고

국회財務委는 17일 재무부가 추진중인 「金融關係法의 개정」내용에 대한 보고를들었다.

財務部는 이날 보고에서 『경제여건의 변화에따른 銀行法등 7개 金融관계법의 전면개정을 2년의 시한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이번정기국회에 ▲韓銀法▲銀行法▲産銀法▲국민은행법▲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시설대여산업육성법▲신용조합법등 7개법에 대한 개정안을 1차로 제출하겠다고 보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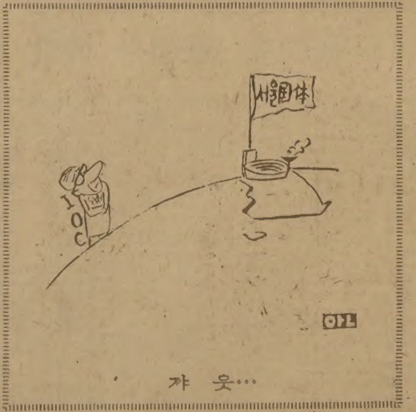
재무부는 7개법 개정방향은 ▲일반은행의 자율화및 民營化에 따른 補完 ▲금융기관의 大型化 기반조성 ▲금융업무의 조정 ▲效率化 ▲금융관계법령체계의 정비등이라고 밝히고 주요내용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대한 신용사업허용(韓銀法) ▲大株主의 주식소유를 발행주식총수의 10%로 제한(銀行法) ▲法定자본금을 현행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增資(産銀法) ▲81年末이 限으로되어있는 실시한의 폐지(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 ▲자기자본에서 발행할수있는 社債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倍까지 발행(시설대여산업육성법)등이다.

재무부는 이외에도 이번정기국회에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폐지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盧外務, 두野黨에 訪美성과등 설명

盧信永외무장관은 17일 상오 柳致松 民韓黨총재와 金鍾哲국민당총재를 각각중앙당사로 예방, UN총회에 즈음한 자신의 訪美성과등을 설명하고 정기국회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社会漫評



地平線

근래 경찰수사와 人權에 관련된 대법원판결이 잇따라 보도됐다. 하나는 自白의 任意性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부당수사에 대한 수사관개인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尹景花씨 피살사건과 여대생피살사건의 경찰수사가 말썽을 빚던 뒤끝이라, 이들 판결은 각별한 관심을 끈다. ▼첫번째 판결(14일字본보11면)에서 대법원은 검찰에서 진술한 自白의 任意性을 문제삼았다. 경찰에서 강압을 못이겨 범행을 自白하고 검찰에서 같은 내용을 진술했더라도, 강압된 분위기가 검찰수사단계까지 지속됐다면, 그것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수없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검찰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경찰의 부당수사를 견제함과 함께, 검찰에서는 任意性이 보장된다는 전제를 둔 규정이다. 이에따라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任意性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라고, 경찰의 위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보장은 없다. 대법원판결은 이에대한 일깨움이다. ▼우리네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적어도 경찰수사에 의혹이 있을때는 처음부터 검찰自白에 任意性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원칙이 정립되었으면 한다. 이럴때의 검찰조서는 더욱 엄격한 任意性의 立證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검찰은 公訴유지를 위해서도 경찰수사에 의혹이 없도록 수사지휘를 강화해야 할것이고, 지나친 경찰수사에도 스스로 제동이 걸리리라 생각한다. ▼대법원의 두번째판결(15日字본보11면)은 국가가 불법수사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는 담당수사관에게서 그돈을 받아 낼수 있다는 내용이다. 불법수사의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수사관 개인에게 귀착된다는 뜻이니, 법의 집행, 범죄수사의 명분이 수사상 부당행위에 대한 免罪符일수없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事理는 刑事責任에서 더욱 뚜렷하다. ▼새삼스런 얘기같지만, 제5공화국 헌법은 自白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欺罔」등으로 얻어진 때는 유죄의 증거가 될수없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형사소송법과 똑같은 규정을 굳이 헌법조항으로 끌어올린 까닭은 다시 한번 새길 필요가 있다. 하긴 살인사건 현장에서 형사가 피해자의 예금통장을 훔치는 판국이라, 이런말이 迂闊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새 헌법에 알맞은 수사자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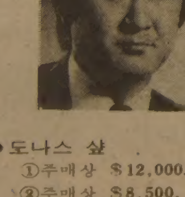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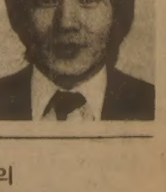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531—0277
한국관
연중무휴
AM11시 새벽1시
특별메뉴
●식욕을 돋구는
된장찌게정식
순두부찌게정식
생선찌게정식
민어매운탕
즉석불고기정식
즉석곱창전골정식
곰탕, 꼬리곰탕
입반죽 냉면
비빔냉면
회냉면
중국요리일절
결혼피로연, 환갑동창회
각종회의, 단체손님환영
※회의실 60석
성심 성의껏 열가로 봉사하겠아오니 왕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나옥녀 올림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심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세일즈맨
신 영 하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商品대금「石油」고집도

現地서 스토크세일등 곤혹치러

수출多邊化따른 對策세워야

故意的 클레임 發生시켜 / 對阿洲등 수출에 타격

수출물량이 늘어나고 수출대상지역이 다변화되면서 CAD (선적서류인수기준) 혹은COD (물품인수기준) 방식에의한 새로운 형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나 바이어측의신용이 부실할뿐아니라 잦은 클레임과 변칙적인 대금결제때문에 수출업계가 커다란 손실을 입고있어 적절한 대책이 요청되고있다。17일 상공부와 관련업계에 의하면 中東、아프리카제국등 신용거래방식을 모르는 일부국가에서는 상품을 수입할때 신용장에의한 거래방식을 채택하지않고 현물을 보고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택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리비아를 비롯한 일부국가에 대해 CAD 혹은 COD등 현물거래방식에의한 수출이 부쩍늘고있다。

관계당국에 의하면 금년들어 8월말현재 CAD혹은 COD방식에의한 수출은 4억9천9백만달러에 달했고 연말까지는 약9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우리나라의 상품을 수입한 바이어들은 상품이 도착하면 부당한 트집을 잡아 마음대로 클레임을 걸어 인수를 거절함으로써 이미 수출된 상품이 현지에서 체화되는바람에 수출업자는 하는수없이 현지판매(스토크세일)를 하고있으나 대부분 엄청난 손실을 입고있다。또 바이어들은 부당하게 대금결제를 지연시키거나 석유등 현물결제를 고집하고있어 수출업체들은 대금결제과정에서도 큰타격을 받고있다。

일반적으로 수출은 거래상대방의 신용을믿고 물품을인수받기전에 수출업자가 수출상품을 배에실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선하증권만 확인되면 대금을지급하는 신용장거래방식을 취하고있으며 이밖에 선박、플랜트등 내구연한이긴 일부중공업제품에 대해서는 상품을먼저수출하고 대금은 뒤에몇차례 분할해서회수하는 중장기 연불수출방식、그리고 수출업자가 현지에서 직접상품을 판매하는 DA、DP등 신용장없는 수출방식이 예외적으로 활용되고있다。

이에 대해 CAD (Cash against Document) 혹은 COD(Cash on Deliverg) 방식은 신용거래의 경험이없고 외환상태가 좋지않아 상품대금을 적기에 지불할수없는 나라에서 채택하고있는방식인데 中東및아프리카의 외환사정이 좋지않은 나라에서 사용하고있는 후진국형 거래방식。우리나라도 수출상대국이 다변화되면서 후진국형 거래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CAD 혹은 COD방식은 먼저 수출업자의 현지대리인이 바이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면 수출업자는 이에따라 제품을생산해서 현지로 보낸다。현지 바이어는 상품이도착하면 상품을확인하여 인수한후 30~60일후에 대금을결제한다。그러니까 상품을 외상으로 수입한후 물건을팔아서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그런데 현지수입상들은 신용이 부실할뿐아니라 농간을 부리는 경우가많아 우리나라의 수출업자는 걸핏하면 봉변을 당하고있다。

또 일부산유국은 상품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지않고 자기나라에서 생산된 기름으로 지불하겠다고 고집하고있으나 油種이 달라 우리나라 정유회사는 당해국의 기름을 사용할수없기때문에 기름을 수출대전으로 받게되면 국제원유시장에서 헐값에 팔아넘기거나 국내사용이 가능한油種으로 바꿔도입해야한다。

이경우 原油의 국제거래경험이 미숙하기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게된다。

住公、26일부터

光明市등 3地域 아파트分讓실시

주택공사는 光明市鐵山洞과 大田市太平洞、議政府市金梧洞등 3개지역에 건설중인 아파트3천3백40가구에 대한 분양신청을 오는26일부터 접수한다。

17일 住公에따르면 이번분양될 아파트는 모두 연탄온돌식으로 光明市鐵山洞 아파트는 11~15평형 2천2백20호로서 오는12월 입주예정이며 大田市太平洞아파트는 13~17평형 8백호로 내년4월 입주예정、議政府市金梧洞아파트는 13평형3백20호로 오는12월 입주예정이다。

中小기업離職심화

賃金낮고 大業體서 스카우트

다른 기업에 의한 스카우트、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중소기업종업원들의 離職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17일 중소기협중앙회가 1천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고용실태」에 따르면 지난2·4분기중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70·8명으로 1·4분기의 69·2명에 비해 0·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간중 이직한 종업원수는 총5천96명으로 업체당 평균 5명에 달하고 있으며 직급별로는 생산기능직 종업원이 4천3백30명으로 전체의 85·6%를 차지、기능직분야의 離職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平壤은 魂이 없는 都市

市民들 어항속의 물고기처럼生活 / 金日成宮殿은 유럽王宮보다 사치

埃紙、北傀訪問記

【카이로16日=聯】이집트의 일간 알·아크바르紙는 최근 게재한 平壤에관한 기사에서 平壤은 『혼이없는 세계』이며 시민들도 『어항속의 물고기들처럼 단순한육체로 비천하게 살고있다』고 묘사했다。

이신문은 지난9월 北傀를 방문한 카말·하산·알리 이집트외상을 수행하고 돌아온 칼럼니스트 마하·압델·파타씨의 기사에서 北韓주민들의 생활은 『모든것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는 金日成한사람의 주위를 쳇바퀴돌듯 맴도는 미천한것』이었다고 보도했다。

파타씨는 또 北傀사회를 『겉만 번지르르하게 채색된 어항』에 비유하면서 『그곳 사람들은 사고나 목적도없이 어항속에서 물고기처럼 살아가고있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이어 金日成궁전의 호사스러움에 경악을 표시하면서 金의궁전은 유럽각국의 王宮이나 美國의 白亞館에서도 찾아볼수없는 사치와 호사를 극한 장소였다고 지적했다。

예술과 實用의 調和

1회 全國 우수家具 전시회

◇국내서 처음열린전국우수가구전시회。출품작들은 요란스런 장식이나 무늬가 들어가는 고전풍대신 단순화·실용화경향이 뚜렷하다。

「참 많이도 달라 졌구나」。정할기회가 없었거나 인식부족이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수분야 전시회에 가면 흔히 갖는 감정표현이다。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永東 한국 종합전시관(KOEX)에서 국내 처음으로 열리고있는 제1회전국우수가구전시회도 찾는이들에게 경탄과 선망감을주기에 충분한 그런 전시회다。

우리나라의 가구산업도 대기업해서 전국 규모의 전시회를 가질만큼 성장한 것이다。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崔奎玉)가 주관한 이전시회에는 전국39개 업류 가구생산업체가출품한、거실용、주방용、혼례용、나전칠기、학교용、전통가구등 대중용과 作品준의 고급가구등 모두 3백20점이 전시되고있다。

이전시회에서 최우수상(상공부장관상)을 수상한 尹씨농방(대표尹美子)의 호도나무거실가구세트(옷장·이불장·경대·장식장·양문갑침대)는 전문가들로부터 호도 나무에 직접 꽃무늬 자개(멕시코産)를 입히고 되도록 금속장식사용을 피해 예술성과 실용성을 잘 조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역시 호도나무(수입목)로 만든 宛昌가구의 책상은 견고、편의、품위성등을 고루 갖춰 절로 손길이 간다。세일가구의 흑단목옷장(한바리 3세트 12자×9자)은 나무가 아닌 비단을 만지는 느낌이다。출품작대부분이 그렇듯이 내부는 벌레가 찌지 않게 오동나무로 만들었다。향나무 선비탁자(3.5×2.5자)는 그윽한 향내음이 품위를 한껏 높인다。

金屬장식 서서히 褪色

주거환경변화 쓰기편한 침대類많아 / 꽃무늬·자개등 눈에띈 發展

거실용가구중에는 침대가 눈에 많이 띄어 그동안의 주거환경 변모를 보여준다。특히 아동용 침대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게、서랍식(한양가구의 라자가구·최우수전서업체선정)으로 고안돼 눈길을 끌고있다。

이번 전시회출품작들도 요즘 세계적인 가구추세처럼 요란한 조각이나 무늬가 들어간 고전풍의 퇴조현상을 반영、외부가 단순화되면서 내부구조가 견고 실용적으로 더 디자인된 것이 대부분。금속가구는 견고성과 실용성이 크지만 복잡한 鍍金과정이 가격을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내수판매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올 판매목표를 2천5백억원으로 세워놓고 있는데 9월말 현재의 수출실적은 전체판매실적의 20%인 5천만달러(약3백50억)。85년에는 2억달러를수출、수출산업의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E】

美、中東機動훈련 規模확대

地上·空軍 4천4백명이상이 투입

【워싱턴16日AP=聯】미국은 내달중순 실시될 신속배치군(RDF)의 中東기동훈련에 4천4백명이상의 지상전투 및 공군요원들을 투입、훈련규모를 작년가을에 있었던 1차中東기동훈련의 2배수준으로 확대할것이라고 美國정부관리들이 16일 내다봤다。

정부소식통들은 이번훈련에 참가하는 병력중에는 조지아州 포트·스튜워트에 주둔한 보병제24사단의 1개기계화대대와 노드·캐롤라이나州 포트·브래그에 주둔한 제82공수사단의 1개공수대대등 2개육군대대들이 포함될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실시됐던 1차훈련에는 1개공수대대만이 참가했었다。

美國방위관리들은 금년의 기동훈련계획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않았으나 이훈련에 이집트외에도 수단·오만등 여타親美국가들도 포함시키기위한협의가 현재 관계국간에 진행되고있다고 밝혔다。

日서炭鑛사고 94명死亡

홋까이도 유우바리炭鑛 함몰

【東京17日=聯】16일 발생한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유우바리(夕張)탄광 지하갱 함몰사고로 모두 광부94명이 사망했다고 홋카이도탄광기선회사당국이 17일 발표했다。

구조대원들은 17일아침 치명적인 메탄가스속에 갇혀있는 52명의 광부들에대한 구조를 포기했는데 이들중에는 사건발생후 생존자 구조를 위해 갱내에 들어갔던 구조대원10명이 포함돼있다。

구조대원들은 갱내에 메탄가스가 급증하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발견된직후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개막된 波共產黨전체회의 폴란드 공산당中央전체회의가 16일 黨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의 주재아래 개막됐다。【바르샤바16日AP聯=聯】

波、勞組가담 黨員 숙청

黨中央委요구 政府에 非常대권부여도

【바르샤바17日AP聯=聯】폴란드공산당지도층은 파업권을 잠정동결하고 당내숙청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관영PAP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당중앙위원회에 참석중인 당간부들은 현재 경제난국을 넘기기위해 정부에 2~3년간 비상全權을 부여하라고 제의했다。

당제1서기 카니아는 黨의 마르코스 레닌노선에따라 당원들의 노조참여를 금지할것이라고 선언했다。

폴란드 공산당은 이미 숙청작업에 착수、15일 유일한 여성대의원인 보그린·리스(29)을 당에서 추방한데 이어 17일 중앙위원회에서 언론인노조지도자 스테판·브라트코프스키를 다시 당에서 추방키로 결정했다。

폴란드공산당은 또한 11명의 지도적인 공산당원으로하여금 노조탈퇴서약을받았다。이들11명중 9명은 당중앙위원이며 또한 이들중 8명이 폴란드남부도시 카토비체시 당소속이라고 관영 PAP통신이 전했다。

上院서 通過가능성

早期警報機 판매안

【워싱턴16日聯=聯】촬즈·퍼시 美上院外交위원장은 16일 美행정부의 對사우디아라비아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판매안 부결권고안이 하루전 上院外交委를 통과했음에도 불구、AWACS 판매안이 이달말 上院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퍼시위원장은 이날 한 TV회견에서 『나는 上院이 AWACS 판매안을 승인할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回教 과격분자 千5百명 逮捕

이집트 政府

【카이로16日UPI=聯】이집트정부는 사다트 대통령의 서거이래 처음으로 또다시종교적과격파및 잠재적으로 사회적혼란을 야기할 소지가있는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개시、일차로 1천5백여명을 체포·신문중에 있다고 정부측근 소식통들이 16일 밝혔다。

이 소식통들은 이집트 보안군이 최근 수일동안 1천5백여명의 회교정통파 과격분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하고 이집트 정부의 이같은 대규모 검거작업은 대학가의 개강과 때를 같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통들은 사다트대통령이 지난6일 피격 사망하기전 회교과격파들과 국가전복모를 기도하고 있는것으로 믿어지는 불순분자 약7천명의 명단을 입수했다고 밝힌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검거된자들은 대부분이 명단에 올라있던 사람들이며 앞으로 더많은 사람들이 체포될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소식통들은 사다트대통령이 불의에 사망한후 당국의 수사관들이 사다트대통령이 갖고있던 명단에 올라있는 회교과격파들이 정부전복을 목적으로한 일련의 폭력행위와 관련돼있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沙漠戰의 영웅…「애꾸將軍」

自稱 "유태인農夫"…다얀의 一生

항상 검은 안대를 하고 다녀 애꾸눈장군으로 유명한故 모셰·다얀前이스라엘외상은 스스로를 유대인농부로 불렀지만 그를 아는 세계각국민들의 눈에는 오히려 자신만만하고 직설적이며 대담무쌍한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비쳐왔다。

또 조국이스라엘내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눈에 비친 그는 단순히 혁혁한 戰功을 세운 장군도 지난56년、67년 전쟁의 영웅도 아니고 지난 73년 中東戰초기에 이스라엘의 패배를 초래한 주범도 아니었으며 복합적인 성격을지닌 정열적인 군인이요 정치가였다。

한때 그를 국가적인 영웅으로 칭송하던 사람들에게도 그는 정치적인 「방랑자」로 변모했다。

다얀장군은 그의 잔뼈를키워온 勞動黨을 버리고 자신과 학술적스승 벤·구리온의 정적인 메나헴·베긴수상을 위해 외상직을 맡았다。

◇生存당시의 다얀將軍 70년6월 당시 이스라엘국방상이던 모셰·다얀장군이 이집트軍기지를향해 출격하는 이스라엘 전투기들을 지켜보고있다。【UPI】

다얀은 베긴내각의 외상으로서 캠프·데이비드 협정추진을 기획하고 지난79년3월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체결에 앞장섰다。

그러나 그는 팔레스타인자치협상을 둘러싸고 베긴수상과、또한 내각의 강경파와 견해차를 보이게되자 지난79년10월21일 미련없이 내각을물러났다。

그후 악화된 건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의회로 복귀한 다얀은 81년6월30일총선에 나서기위해 스스로 텔렘黨을 창설했으나 1백20개 의석중 단2석을 차지하는 참패를 맛보았다。

對埃 평화협정체결 主役

參謀總長·國防相·外相등 역임 / 텔렘黨創黨…總選선 敗北

지난73년 전시에 勞動黨내각에서 국방상을 지낸 다얀장군은 베긴수상의 리쿠드黨으로전향、외상직을 맡은후 외상직사임4개월전에 大腸의 癌부위제거수술을 받았으며 다시 5주일후에 整腸수술을 받는 어려운 투병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다얀의 이러한변신은 원래 2차대전당시 하가나지하부대시절부터 인정받아온 융통성과 돌발성으로특징지어진 그의 성품이기때문에 노동당내에서도 별다른반발이 없었다。

그가 한쪽 눈을 잃은것도 2차대전당시 濠洲軍에 배속됐던 하가나지하부대원시절에 프랑스製탄환에 맞은것이 원인이다。

다얀은 한쪽눈을 잃은후에도 지난 48~49년독립전쟁당시에 특공대지도자로 활동했으며 이스라엘軍이 현대식으로 재편된후 53~57년 참모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다얀장군은 자서전 「나의 생애」에서 지난 67년 6日전쟁의 승리는 집중적인 전투훈련과 돌격전에서 사병보다 장교가 앞장서는 『나를 따르라』는 원칙이 주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주위의 아랍人친구들과 곧잘 어울렸다』고 진술한 다얀장군은 외상재직시절에 요르단江 서안과의 기능적 통합개념을 주장하기도했다。

다얀장군은 소련에서 이주한 부모사이에서 지난 1915년5월20일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인물이었다。

다얀장군은 한편 고고학에도 열중、정부소유의 골동품까지도 유용한다는 비난을받을만큼 독특한일면을 갖고있었다。【텔아비브=UPI】

메아리

생각하는 菊花

우리네 가을은 코스모스에서 피어나 국화에서 진다。『菊花속에는 기러기 날아가는 서리찬 달없는 하늘이 비쳐 있다』고 어느 시인은 가을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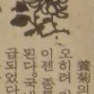
晩秋를 불태운 단풍은 낙엽이 되어 딩군다。이 쓸쓸한 계절에 孤高한 매무새를 지니고 우리에게 선뜻 다가서는 것이 국화의 자태다。국화의 꽃말은 『나는 사랑한다』지만 우리에겐 이 꽃이 절개와 지조를 배워준다。그래서 조선 英宗때 문인 李鼎輔는 그 『傲霜孤節』 앞에 머리를 숙였다。落木寒天에 홀로 핀 국화를 보고 그는 숙연할따름이었다。

원산지가 중국으로 알려진 국화엔 이런전설이 전해진다。옛날 중국의 장방이라는 사람이 환경이라는 사람을 찾아왔다。9월9일(음력)에 큰 재앙이 있을것이니 빨리 집을떠나 높은곳에 오르고 국화술을마셔야 禍를면한다고 일러주었다。환경은 이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다。집에돌아와보니 기르던가축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중국에선 9월9일 重陽節을 국화의날로 지켜오며 국화술의 悅樂에 잠기도한다。

국화는 삼국시대에 벌써 우리나라에도 전래된 것으로 알려졌다。신라때 국화를 태워 약재로썼다는 기록이 보인다。백제는 16대辰斯王때(서기385년) 국화씨를 일본에 보내주었다는 사실도 잘알려진 이야기다。

유럽사람들이 동양의 菊香에 취하기 시작한것은 대체로 17세기께。꽃이름은 크리샌더멈(Chrysanthemum)으로 희랍어로 『황금의 꽃』이란 뜻이다。우리눈엔 지조로 비치는 탐스런黃菊이 왜 황금덩어리로 보였는지 궁금하다。

養菊의 기술은 원산지보다 오히려 이쪽에서 더 발달했다。이젠 종류만도 2천~3천종이 된다。국내에도 7백여종이 보급되었다。



가을이 깊어가면 곳곳에 국화가 흐드러지게 피어난다。농가에선 원예부업으로도 재미를 본다。가을의 정서를 국화에 담아보는 마음가짐이 날로 늘어나는것이 반갑다。삭막한 도시의 창가에 국화한송이라도 피우고 삶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겠다。

『드높은 생각、겸소한 생활』을 우리는 국화에서 찾아본다。국화는 생각하는 계절의 생각하는 꽃으로 우리 마음에서 피고 또 진다。

有事時엔 상호支援가능

이집트·수단防衛條約체결로

【런던16日聯=聯】차드를통한 리비아 수단침공 가능성을 경계하고있는 이집트와수단은 상호방위조약을 갖고있어 일단 유사시에는 상호지원이 가능하다。

양국을 합쳐 6천여만명의 인구를 갖고있는 이집트와수단은 인구 3백여만명의 리비아보다 많은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풍부한 석유수입과 蘇聯무기를 대량 확보하고있는 리비아는 重火器、특히 공군전력에서 우위에 있다고 16일 서방군사전문가들이 밝혔다。

무바라크 신임 이집트대통령은 지난14일의 취임연설에서 사회혼란을 피하는자들은 어느누구도 法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이연설에서 종교적과격파들에게 강경한 조처를 취해나갈것이라고 선언했다。

佛의對리비아 武器販禁요청

레이건 頂上회담때

【워싱턴16日AP=聯】레이건 美대통령은 18일 버지니아州 요크타운에서열리는 프랑스와·미테랑 대통령과의 美佛정상회담에서 프랑스의 對리비아 무기판매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白亞館소식통들이 16일 전했다。

이번 美佛 정상회담은 레이건—미테랑 대통령정부 출범이후 두번째로 열리는것인데 미국은 이미 프랑스의 對리비아 무기공급 재개결정에 대한 불만을 전달한바있다고 한 美고위관리는 밝혔다。

平昌郡 魯城祭개막

임진왜란때 魯城山에서 왜적을 격퇴한 승전을 기리기위한 제4회 魯城祭가 17일 강원도平昌郡平昌邑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16일의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막된 이날 魯城祭에서는 농악·민요경창·서예전·시화전·백일장등과 군민체육대회가 열렸다。【平昌】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81

海外토픽

카네티翁 潛跡

★나 알려면 내 책 읽어라

금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英작가 엘리아스·카네티翁은 수상발표후 하루가 지난16일현재 자신의 소재를 계속 감춘채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따돌리고있다。

카네티翁의 독일어저서를 출판하고있는 한세르·베르라그출판사의 프리츠·아르놀트 편집장은 카네티翁이 개인예찬에 대한 혐오감때문에 은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르놀트 편집장은 카네티옹이 자기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내가 말할것은 내책에 이미 말했다』면서 『모든것은 그안에 있다。누구든지 나에 관해 알고싶은 사람은 내책을 읽어야할것』이라고 말했다고 16일 전했다。

그는 카네티옹이 현재 西獨내에는 없으며 이 메시지도 스위스내의 한비밀장소에서 보낸것같다고 말했다。【뮌헨=AP】

최고2천5백弗 가짜結婚에

★美 永住權위한

외국의 불법입국자들이 미국영주권을 따내기위해 사용하는 가짜결혼인 이른바 『임대부부』사기결혼이 미국에서 계속 성행하고 있는듯。

최근 미국이민귀화국의 한 여직원은 이같은 『임대부부』사기결혼을 눈감아주고 가짜결혼신고 1건당 2백달러내지 5백달러씩을 뇌물로 받다가 들통、쇠고랑을 찼다。【로스앤젤레스=AP】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창립예배 안내

주님의 이름으로 교포 여러분께 문안 드립니다.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음으로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일 시 : 1981년10월25일(일) 오후2시

장 소 : 새 예루살렘교회

주 소 : 5 Grenoble Dr. (429-1430) Donmills, Ont.

설 교 : 노회 동부지부회 대표목사

새 예루살렘교회

담임목사 김승환

교우일동

봉학농장

안녕하세요.

김장철을 맞이하여 시내 전역에 직접 배달합니다.

(3 BOX이상주문)

※배추, 무, 파, 갓, 다꾸왕(왜무), 총각무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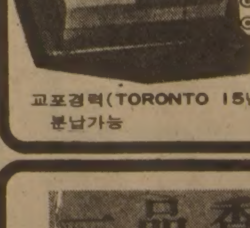
☎ : 775-6256

(아침9시이전, 저녁7시이후)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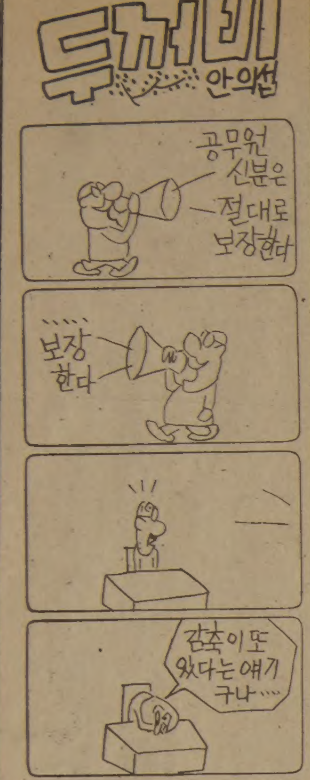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CHINA ROYAL RESTAURANT



제발등 찍은 망신警察…刑事가 그럴수가

◇예금리出劇밝혀낸 용감한사나이

서울지검에 출두, 河英雄형사가 벌인 여금인출 기도극의 전말을 밝힌 徐호일씨(26)가 형사진에 둘러싸인채 보도진을 피해 시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高여인審問 장본인 銀行출동도 그가

尹甲富사건의 「베테랑」…河형사의 「숨바꼭질」 顚末

河英雄형사는尹景花피살사건의 범인으로 高淑鍾씨(46·여)를 구속하는데 공을세운 장본인이었다。

河순경이 尹보살사건에 참여한것은 지난8월8일。

현장발견은 8월4일이었지만 河순경이 휴가중이어서 8일부터 高淑鍾씨 전담형사로 뽑혀 高씨가 8월18일 구속될때까지 10일동안 高씨와 함께 지내며 모든심문、진술조서등을 맡았었다。

한편 예금증서출현신고를 받고 처음현장에 나간것도 河순경이었다。

지난14일 하오3시20분 제일은행 退溪路지점으로 부터 龍山경찰서 조사반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를받은조사반장 崔士鍾경위가 형사계에 연락했는데 때마침 당직근무중이던 河형사가 직접연락을받고 담당반장등 상급자는 물론 동료에게도 이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채 현장으로 나갔다。

河순경의 도착이늦어 은행측이 평소 지면이있는 수사과 李모경사에게 다시 전화했는데 李경사는 이사실을 수사과장 金鍾湖경정에게 보고하고 현장에나가 수사를하던중 뒤늦게온 河순경에게 인계、수사하도록 했다。

金수사과장은 千모형사등 2명의 형사를 증원、모두3명의 형사가 陸秉龍씨(62)와 李泰鉉씨(51) 등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河순경은 매우 불안한모습으로 동료형사들과 떨어져 별도수사를한다며 바삐 돌아다녔다는것。

시경수사결과 河순경은 趙씨등에게 미리연락、피신하게 조치하고 다른 2명의형사는 이것도 모른채 계속 趙등을 추적하는 눈감고아웅식의 숨바꼭질이 벌어졌다。

이사건이 보도되기직전인 16일새벽1시 취재기자가 간부의 연락을받고나온 河순경을만나 사건경위를 물었을때도 『전혀 모르는일』이라면서 애써 태연한척 해보였지만 어색한 모습이었다。

제3의 인물로 수배를받던 趙仁宰씨(50·서울銅雀區上道3洞279의151)의자수가 늦은것도 河순경이 자신에게까지 파문이 돌아오지않게하기위해 미리 막으려고 뛰어다닌탓。

趙씨의 딸(27)도 이를눈치채고 지난16일하오2시 趙씨의 며느리(24)와함께 평소 다니던 서울冠岳區新林本洞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생교회를 찾아 安모목사(48)에게 『아버지가 의심받고 있으나 억울하게 당하는것 같다。경찰이 뭔가를 조작하려드는 것같다』고 말했다는 것。

같은날 하오7시25분께 趙씨는 집으로 전화를걸었는데 부인(48)이 『당신이 지명수배됐는데 죄가있으면 벌을받든지 없으면 누명을 벗어야될 것아니냐』고 말하자 『나는 상관없다。내일 직접 시경에 들어 가겠다』고 했다는 것。

◇趙仁宰씨

◇趙文宰씨

◇李泰鉉씨

◇陸秉龍씨

高여인 拘束때도 「有功者」
변호인단 고문證人으로 채택했던 사람
見物生心…陸·李씨소환조사때不安·초조

꽃도매상
437
CARLAW ST.
☎465-8167

公訴유지疑問 高여인

檢察 捜査공정성여부 곧調査키로

경찰物證 우황청심환도話題

피살된 尹景花노파의 예금증서를 河英雄형사가 사건현장에서 빼낸것으로 밝혀지자 검찰은 尹노파살인범으로 이미 구속기소되어 공판중에있는 高淑鍾피고인(46)에 대한 공소유지문제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쏟기시작했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17일 尹노파의 예금증서를 현장에서 빼낸 장본인이河형사라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특히 河형사는▲尹노파살인사건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수사경찰관중의 한사람인데다 ▲高피고인을 수사과정에서 직접 고문한 형사로 알려져 지난12일 열린 2회공판에서 高피고인의 변호인측에 의해 증인으로 채택된점을 상기시켰다。

한편 高피고인은 지난번1회공판에서 『경찰의 고문때문에 범행을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물증으로 제시한 우황청심환은 경찰의 조작』이라고 말해 공판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검찰은 이번 경찰관에의한 예금증서 절도사건을 중시、河형사에대한 수사과정에서 高피고인에대한 河형사의 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집도 元曉路…68년경찰投身
河순경과 그의주변

河英雄순경(40·서울龍山區元曉路1街26의36)은 서울I高를 졸업、지난68년 6월1일 순경으로 임관돼 79년1월23일 龍山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형사3반에 배속됐다。

그동안 河순경은 검찰청등 파견근무로 형사계 일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 지난 8월8일 휴가에서 돌아와 형사계일을 하기 시작했다。

河순경은 10년전에 결혼、현재9살、7살난 두아들을 두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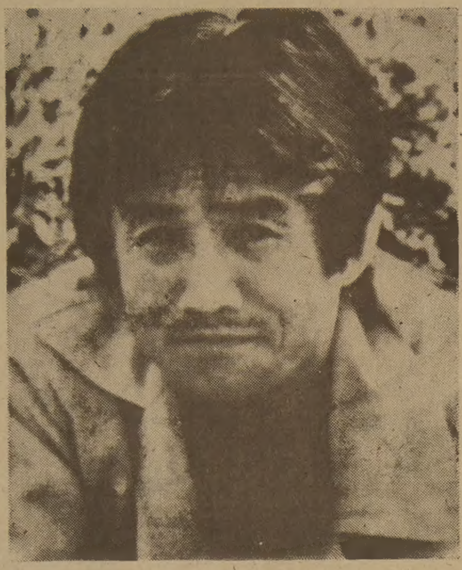
河순경은 지난3월18일 江西區新亭洞에서 元曉路1街로 이사、방두칸을 3백만원에 전세들어 살고있다。

동료직원들에 의하면 河순경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평소 술을 좋아하는편인데 파견근무를 많이해 친분은 별로 없었던 편이라는것。

◇트럼프속의 西獨축구스타 서독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FC 바이에른·뮌헨팀소속 슈퍼스타인 FW 칼·하인츠·루메니게의 경기하는 모습이 서독 바바리아씨의 최고급인 샤프코프 트럼프에등장、축구장에서뿐만아니라 카드놀이에서도 사랑을 받게될것이라고。【키스톤=특약】

趙씨에겐 "避身하라"연락…國民들 충격

배후쫓다가 둔갑「등잔밑」두고 手配법석



◇河순경…바로이사람 사건수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증거물을 정리까지한 河英雄형사는 순간의 물욕을 이기지못해 자신의 일생은물론 전체경찰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말았다。

尹景花씨(72)의 예금인출기도 미스터리는 까고보니 말단수사형사의 단순절도극에 불과한것임이 밝혀졌다。尹씨 피살사건현장에 접근했던 수사요원이 「見物生心」상태에서 슬쩍 집어넣었던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둔갑해 버린것이다。尹씨 살해범 高淑鍾씨(46)에 대한 결정적 물증이냐、아니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것이냐는 의문때문에 경찰은 물론 전국민의 관심을끌었던 이 미스터리의 배후가 「단순한것임」이 드러난것은 한편으로는 무척 다행한 일일지 모른다。그러나 경찰에게는 더이상 아플수가 없는 「독직사건」이다。高淑鍾씨에 대한 수사의 임의성 시비、여대생 朴尙恩양피살사건에 관련된 장기연행시비에 휘말려 경찰고위층이 국회에 나가 「인권해명」에 진땀을 빼야할 시기에 고약하게 겹친 해프닝인 것이다。경찰의 수사공신력은 더욱 상처를 입게됐고 수사요원의 사기가 저하될수밖에 없는 괴로운 주말이다。그러나 경찰력의 둔화는 사회의 안전을 위해 불행한 일이 아닐수없다。경찰은 재빨리 사고 경찰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인사를 단행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우리경찰이 급변하는 세태에 맞게끔 알맞는 체질개선을 하지 않는한 이런 수난은 언제고 다시 재발할수 있다는것을 두번 세번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다。

절도극시말　지난14일하오 제일은행 퇴계로지점에서 尹씨의 정기예금증서3장을 개인、돈을찾으려던 陸秉龍씨가 연행된뒤 17일까지 3일간은 숨가쁜 시간이었다。

예금증서의 출처가어디냐、범인으로 기소된高淑鍾씨냐、전혀 다른 진범의 것이냐、아니면 살해된 尹씨가 생전에 양도한것인가、무수한 추측과 추리가 난무했다。경찰은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있는것으로 밝혀진 趙仁宰씨(50)를찾느라 법석을 떨었지만 막상 趙씨가 자진출두、입수경위를 밝히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을 받고말았다。

수사진은 동료의 추악한 범행에 경악을 금치못했고 생선가게를 맡은 고양이를 본 국민의 충격 또한 엄청난 것이었다。

지난16일 기막힌 물증이나타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수뇌가 받은 쇼크는 무척컸다。물증의 중요성도 컸지만 이 사실을 안 龍山경찰서가 상부기관에 일체 보고를 하지않았던 사실에 또한번 놀랐던것。

朴在植시경국장은 즉시 이사건을 관할서인 龍山서에서 시경으로이첩、수사하라고 지시、강력계형사를 모두 투입해 문제의 인물 趙仁宰씨를 찾아나섰다。

가까스로 上道洞집을 찾았으나 趙씨는 다른곳에서 16일밤 경찰에 연락했다。곧나가 입수경위를 밝히겠다고만 말했다。기다리던 趙씨가 17일상오8시가 넘도록 나타나지않자 경찰은 趙씨를 범행관련자로보고 사건을공개、본격적으로 수배하려고했었다。

그러나 상오9시께 서울시경에 출두한 趙씨는 문제의 통장을 동생 文宰씨에게서받아 예금을찾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밝혔고 동생의뒤엔친구 徐호일씨가있고 그뒤엔 『龍山경찰서의 형사가 있다』고 밝혔다。심문을하던 수사관이 놀라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있을무렵 徐씨는 서울지검으로 尹씨 피살사건을 맡은 鄭相明검사실을 찾아와 사건의 진상을 털어놓게 된것。

문젯점　그러나 물증수사는 기대와달리 싱겁게 끝나 버렸지만 5백50만원짜리 정기예금증서3장은 새로운파동을 몰고왔다。

우선 이예금증서를훔친 河형사가 단지3개만빼냈는가、또다른 절도행위는 없었는가 가 의문이다。은행에서 신고된 陸秉龍씨와李泰鉉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河형사의범행이 드러나자 이를 은폐하려는 기도는 없었던것인가、이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않은 업무체제는 문제가없는것인가등 의문이 줄을잇는것이다。

또 외형상으로는 尹씨사건에 대한 공판과 관계가 없는것으로 끝날것같지만 후유증은 만만치않다。이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검사들은 재판부에 나쁜 영향을 주어 공소유지에 더욱 고전하게 될것 같다고 걱정이다。

또 재판과정이야 법관의판단에 맡기고 河형사의 법행은 법대로 처벌하면 그만이겠지만 이제 땅으로 떨어진 경찰의 위신은 어떻게 만회하느냐는 중대한 문제가 남았다。

예금증서의 출처를 찾는 숨가쁜 수사를펴면서 서울시경의 간부들은 만약 高여인의 범행이 뒤집혀도 허심탄회하게 실수를 인정、새로운 범인을찾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할정도로 침통했다。실수로 범인을잘못잡았어도 진범을 잡으면위신실추는만회할수있다는자위였다。

尹씨피살사건을 핵심에서 수사한 형사의 파렴치행위는 입이 백개라도 할말을 찾을수 없게됐지만 이싯점에서경찰의위신추락보다더무서운것은사기저하와의욕상실이다。

물론 다시는 이러한 비행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분석과 감독체제가 선행돼야하겠지만 경찰은 이를 극복할수있게 수사력을 정비、배전의노력을 기울여야할것이다。

첫手交 徐씨 檢察서 털어놔

檢察 "眞犯누구던 꼭잡아야 위신실추만회"

3일간의 숨바꼭질이 전체 경찰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결과로 돌아간 17일 관할 서울龍山경찰서는 물론 서울시경、치안본부는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버렸고 함께 확인수사에 나섰던 서울지검의표정도 밝지 않았다。

검찰 … 17일 상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의 중요한 관련자인 徐湖日씨(26·사채업자)가 제발로 찾아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일도 없는듯했다。

상오 9시30분 金錫輝지검검사장실에는 徐廷信 韓永錫 金有厚검사등 3명의 차장검사와 잠바차림의 金基晛형사3부장및 尹노파 피살사건을 맡고있는 鄭相明검사가 모여 20분동안 회의를마치고 나오면서 『등산이나 따라 가야겠다』고 아무일도 없는듯한표정들。

상오10시30분쯤 徐씨가 검찰청3층304호실의 형사3부장실로 들어가자 문은안으로 굳게 잠가졌고 徐씨에 대한 예금증서출처조사가 시작되는한편 이사실은 웃간부에게 보고됐다。

이때 검찰은 徐씨에대해정식조사를 하지않기로 방침을 결정、서울시경에 연락、尹桂璇형사과장을 검찰청으로 오도록했다。

상오11시30분 尹과장이 304호실로 들어간뒤에도 문은 굳게 잠겨있기만했는데바로 이무렵 朴在植시경국장과 전화통화를 마치고 보도진들과 만난 金검사장은 『趙仁宰씨가 부인을통해 경찰에전화해왔기때문에 곧 자진출두를 할것』이라고 철저하게 연막전술을 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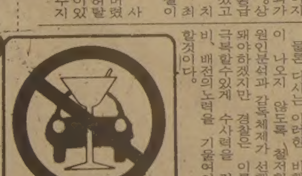
하오 1시10분이되자 서울시경에서 6명의 형사가 지검으로 달려와 304호실로 들어갔고 5분뒤에 徐씨는 형사들에 둘러싸여 현관문을 나섰으나 대기중인 사진기자들과 한차례의 소동을 벌인 끝에 서울시경으로 떠났다。

경찰 … 수배중인 趙仁宰씨가 17일 상오9시께 서울시경에 자진출두했을때만해도 기대감에 차있는듯한 분위기였으나 뒤이어 河英雄형사가 尹씨집에서 빼낸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착잡한 표정이 돼버렸다。

趙씨를데리고 보도진을 피해 장소를 옮긴전담반은 30여분뒤부터는 진술내용을 간부들에게만 보고、초조하게 기다리던 보도진은 애를태웠으나 상오10시가지나면서부터 尹桂璇시경형사과장과 朴在植국장등의표정이 굳어지기시작、뭔가 심상찮은결과가 나온것을 직감할수있었다。

상오11시께 尹형사과장은 황급히 서울지검으로 들어갔고 朴국장은 심각한표정으로 치안본부에 급히다녀오면서 최종출처가 형사였다는 사실이 새나오기 시작했다。

朴在植국장은 『얼빠진 사람』이라며 입을다물어 버렸고 형사과의 수사진도 허탈상태에서 『할말이 무엇이있겠느냐』고 수치감을 감추지 못했다。



KOREAN AIR LINES

OTHER BUSINESS CLASS

KAL PRESTIGE CLASS

새로운 Prestige Class 의 Dreamerette Seat 침대겸용의자는 등받침이 50°까지 기울어지는 크고 넓은 부드러운 가죽의자이며 좌석 앞의 넓은 공간은 여러분의 긴 여행을 더욱 안락하게 해 드릴것 입니다.

2등 정상운임(혹은 직행운임)에 $50을 추가 지불하시면 Prestige Class 의 편한 좌석에서 1등 써비스와 같은 오도불과 샴페인, 와인등 음료를 무료로 즐기시게 되며 또한 First Class 카운터를 이용하게되므로 신속한 탑승수속은 물론 목적지 도착후에도 기다릴 필요없이 수화물을 즉시 찾으시게 됩니다.

대한항공은 미주에서 매주 20회 서울로 출발하는 유일한 항공사 입니다.
로스앤젤리스에서 주 11회, 뉴욕에서 주 3회 그리고 호노루루에서 주 6회 출발하므로 가장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읍니다.
이번 여행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예절로 정성껏 모시는 대한항공의 새로운 Prestige Class 를 이용해 보세요.

편명	KE001, KE005		KE015	편명	KE007
요일	화·목·토·일	목·일	월·화·수·금·토	요일	화·목·일
로스앤젤리스	10:00	23:20	23:20	뉴욕	23:55
호노루루	12:20 ▼ 13:30	01:40+1 ▼ 03:00+1	▼		▼
동경	16:10+1 ▼ 17:20+1	▼			
서울	19:30+1	07:30+2	07:20+2	서울	06:50+2

비좁은 좌석·넓직한 좌석

대한항공의 태평양 노선 B747 점보기에는 여러분께서 더욱 편안히 여행 하시도록 PRESTIGE CLASS 를 새로 마련했읍니다.

같은 여행길에도 전혀 다른 세계가 있읍니다.

※운임 또는 예약에 대하여는 대한항공 또는 지정여행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여행사 : 한국여행사(531-4607), 신세계여행사(536-2155) 서울여행사(535-6004) 제일여행사(535-2377) 토론토영업소 : (416) 862-8250

大韓航空 KAL

E REGION

金卿文 4打點 활약으로 高大、延世에 連敗 설욕

올3번째 對決서 첫승리

前半선 失策…4회 逆轉시켜 8―3

大學野球선수권

高麗大가 금년 3번째 延·高야구대결에서 8번 타자인 포수 金卿文의 3타수 2안타 4타점 수훈에 힘입어 8―3으로 완승, 금년 시즌 첫 승리를 기록했다. 『생애 최고의 영광이요 모교에 대한 최대의 선물입니다』 17일 高麗大 승리의 원동력이된 金卿文은 8형제의 막내로 태어난 23번째 생일이었다. 제36회 대학 야구선수권대회 이틀째인 이날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1회전 경기서 高麗大는 金卿文의 4회말 역전 2타점 2루타와 7회말 승리를 굳히는 2타점 적시타, 4번 지명타자 金鎬根의 5회말 결승 2타점 3루타로 춘계(4―2) 추계(6―1)리그서 당한 연패를 설욕했다.

『정기전에 대비해서 투수를 아껴야한다』는 소극전법이 延世大를 궁지에 몰아 넣었고 高麗大를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延·高大는 모두언더드로어 李吉煥과 陳桐漢을 선발로기용, 대전에 임했다. 李가 의외로 역투한데 비해 陳은 긴장한 야수들의 실책에 당황한 듯 컨트롤이 흐트러져 2점을 잃고 물러났다.

그러나 3회부터 구원등판한 좌완에이스 楊相汶은 나머지 6회동안 산발 3안타 1실점으로 역투,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高大는 1회말 첫공격에서 선두 韓英俊의 2루타와 보내기 번트, 희생플라이로 1점을 선제.

延大는 2회초 高大유격수 金鎬錫과 3루수 郭東贊의실책과 2안타로 간단히 전세를 뒤엎었다.

춘추계 리그서의 악몽을벗어나지 못한듯 高大수비진은 3회초에도 완전한 2루견제 협살의 찬스를 어처구니없는 낙구로 놓치는등 흔들리기시작했다. 공격에서는 겨우로 견제아웃당한후 2루타를 날리는불운이 겹쳤다.

이러한 高大의 불안은4, 5회말 하위타선의 집중폭발로 깨끗이 사라졌다. 4회말 2死후 데드볼·안타로 맞은 1, 2루의 찬스에서 8번 金卿文이 좌월적시2루타를 날려 3―1로 역전시켰으며 5회말 2死후 5번金鎬根의우월2타점 3루타로 승리를결정짓고 7회말 다시金卿文의 2타점 좌전적시타로 延大의 추격전에서 완전히벗어났다.

仁荷는 嶺南大 완봉 6―0

仁荷大는 이날 1회전서모처럼 등판한 강속구 투수 崔桂勳의 역투로 嶺南大 35타자를 산발4안타 4四死球·13삼진·무실점으로 완봉 6―0으로 낙승했다.

◇제2일1회전

인하대	001	203	000	6
영남대	000	000	000	0
연세대	020	001	000	3
고려대	100	221	20×	8

◇깨끗한 3盜 — 高麗大 7회말 선두타자로 나온 4번 金貞洙가 중월 2루타를 날리고 5번 金鎬根의 레프트플라이로 3루에 진출하고있다.

한국 스페인 完破

世界주니어排球

제2회 세계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에 출전하고있는 한국여자청소년대표팀은 17일(한국시간)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진 B조예선리그 첫경기서 스페인에 7점만 허용하고 1시간20분만에 완승을 거두었다.

대표단이 협회에 알려온바에 의하면 한국은 이날 첫세트에서 세터 黃鉉煕의 재치있는 配球와 장신 李榮善(183㎝)·金貞順(176㎝)·宋賢淑(179㎝)트리오의 활약에 힘입어 1점만을 허용했다. 한국은 2·3세트서 선수전원을 고루 기용하는 여유를 보이며 일방적으로 공략, 가볍게 승리했다.

◇첫날전적 ▲예선B조

한국 (1승)	3	15 15 15		0	스페인 (1패)
		2 4 1			

漢大決勝진출좌절 퀸즈컵축구

【방콕=聯】 漢陽大는 16일 밤 泰國 방콕 국립경기장에서 벌어진 제11회 퀸즈컵축구대회준결승2차전에서 홈팀 라즈플라차팀에 2―1로 이겨 두차례경기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결승진출팀을 가리는 승부차기서 4―3으로 분패, 3·4위전으로 밀려났다.

漢陽大는 15일밤 泰銀行팀과 3·4위 결정전을 벌인다.

83년大會 멕시코서 世界青少축구

【시드니16日UPI=聯】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위원회는 16일 시드니에서 모임을 갖고 오는 83년도대회를 멕시코에서 열자는 전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전의안은 내년1월16일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회의에 회부돼 승인을 받을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와 함께 파테말라가 대회유치를 신청했었다.

高校生 果刀휘둘러 1명죽고 1명重態

【堤川=聯】 16일 밤10시40분께 堤川市 明洞 간이음식점 초원집에서 堤川高3년金모군(19)이 堤川農高2학년 李강희군(19)과 寧越工高2학년 吳수영군(19)을과도로 찔러 李군은 그자리에서 숨지게하고 吳군에게는 중상을 입혔다.

羅勳兒 5년만에 컴백

吉屋潤씨와 손잡고 新曲취입·곧 TV出演도

中央무대活動宣言으로 歌謠界판도 變化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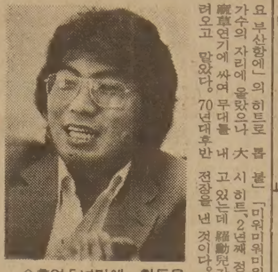
가수 羅勳兒가 휴업 5년의 침묵을 깨고 활동을 재개한다. 76년7월 연상의 톱·스타 金芝美와 결혼을 발표한후 大田에 정착, 개인사업에만 열중해온 그가 불쑥 중앙무대에서의 활동을 선언한것. 따라서 趙容弼이 독주하는 가요계 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60~70년대 가요계 남자가수의 인기판도는 선을 그을만큼 교체가 뚜렷했다. 60년대초에서 중반에 이르는동안은 崔喜準·朴炯俊 위키李·南一海가 가요계를 이끌었다. 「하숙생」「맨발로 뛰어라」「종이배」「빨간구두 아가씨」등이 이들의 히트곡이다.

60년대 후반에는 裵湖·車重洛이 등장 「낙엽따라 가버린 사랑」「누가 울어」「안개속에 가버린 사람」등을 불렀고 이어 羅勳兒·南珍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데뷔, 대중가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車重洛·裵湖의 요절로 가요계는 羅勳兒·南珍의 각축장으로 압축되었었다. 羅勳兒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해변의여인」「녹슬은 기찻길」「임 그리워」「두 줄기 눈물」과 南珍의 「임과 함께」「미워도 다시한번」「그대여 변치마오」등이 라이벌전의 무기로 등장했다. 두사람의 경쟁은 간혹 정도가 지나쳐 폭력사태를 빚기도 했으나 73년羅勳兒가 공군에입대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羅勳兒가 활동을 쉬자 南珍의 인기도 내리막길을 달렸다.

羅·南의 뒤를이어 宋大官 朴友喆 張玄 李容馥이 부상했으나 인기생명이 길지는못했고 76년 趙容弼이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히트로 톱가수의 자리에 올랐으나 大麻草연기에 싸여 무대를 내려오고 말았다. 70년대후반엔 崔憲 尹秀一 河秀英 崔炳傑 曺慶洙가 자리다툼을 벌이다 다시 등단한 趙容弼에게 밀려났다.

趙容弼은 「창밖의女子」의 히트에 이어 후속작인 「촛불」「미워미워미워」가 역시 히트, 2년째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羅勳兒가 돌연 도전장을 낸 것이다. 羅·趙모두 트로트리듬을 잘부르는가수. 노래 스타일이 다르긴하지만 30대중반의 羅勳兒(35)가 후배인 趙容弼을 따라잡을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업 5년만에 활동을 재개한 羅勳兒。그의 컴백으로 남자가수 인기판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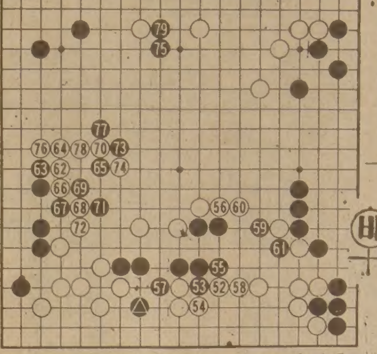
「은퇴」란 표현없이 활동을 쉬었던 羅勳兒의 재등장에는 작곡가 吉屋潤씨와 藝一기업대표 金瑛鎬씨가 지렛대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씨는 羅勳兒·南珍이 경쟁을 벌일때 南珍의 후원자로 활동, 羅·金 두사람사이는 불편한 관계였다. 그러나 최근 金씨가 吉씨와 레코드제작에 손을대면서 지난날의 감정을 풀고 활동재개를 종용했다는 것.

羅勳兒는 『가수로서 꿈을 다 채우지못해 서운한 마음이었는데 집사람(金芝美)의 권유도 있고해서 다시 무대에 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吉屋潤작곡의「이슬비는 나그네」등 10곡을이미 취입했으며 10월말께 MBC·TV에 출연할 예정이다.

68년「천리길」로 데뷔한 羅勳兒는 2란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히트하면서단시일에 정상에·오른가수。【李亨基기자】

第⑬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5局 第4譜 52~79 (각5시간 / 덤5집반)



바둑

白(6段) 姜 哲 民〈1敗〉

黑(4段) 姜 勳〈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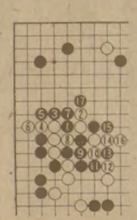
白52로 유유히 지키고보니 黑은 과연 白의 대규모 포위망을 벗어날는지, 姜4단의 고민은 자못컸다.

黑53, 55는 달아날 채비를 하려는 궁여지책。이때 姜6단은 그의 입버릇대로 『바둑이, 바둑이…』하고 끝말을 삼킨다。형세가 좋든그르든 늘 하는 독백인데 여기서는 白56으로 하면 ▲표한점을 잡아잡을까, 말까 망설인 모양이다。그러나 ▲표를 잡는 현찰의크기보다 외세의가치에 매력을 더느끼는것이 그의 棋風이다。

黑은57로 최대한 저항한끝에 61로서 가까스로 연해갔지만 이처럼 세력과실리를 아울러 얻어서는 좋을리가 없다。

더구나 중앙의 白세력은 白62, 64를 아낌없이 결정지은데서 한층 두드러지게되어 정확히 姜6단의능기가유감없이 발휘되는 장면이다。

黑「축머리」로 大變化



黑65를 6분이나 숙고하면서 姜4단은 계속 고심의표정。중앙에 낙하산부대를 투입하지 않고서는 못배긴다 해서 다시금 치열한 공방전을 치르게되었다。

白74때 黑75가 5분을 생각한 축머리였다。즉、참고도와같이 黑1로 단수하여 이하17의축을 노린것이다。

그래서 白76으로 겸사겸사 막았는데 黑79까지 뜻밖의 변화가 생겨났다。이번에는 白의다음수가 흥미거리。【一凡】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여보쇼, 깨끗한 숟가락을 달란말이요!"

쉬—잇

"제발, 그렇게 크게떠들지 말아요"

"그럼 모두들 깨끗한걸 달라고 할게아뇨"

流星의 賦 <211>

李炳注 作 李友範 畫

何處秋風至 ⑨

홍계남이 수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들은 모두 그가 병국에 있을 때의 배하였다。그리고 각기 특기가 있었다。문정봉(文定鳳)은 힘이 장사이고、배석환(裵石煥)은 걸음이 빨랐고、이태수(李泰守)는 말을 잘하며 붙임성이 있었다。

전주에 도착하여 남문 밖 주막에 거처를 일시 정하고 정여립의 집을 살피는데 여립은 친구들과 원행중(遠行中)이라고 했다。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얻기가 힘들어 그 문제는 붙임성 있는 이태수에게 맡겨놓기로 하고 계남은 경치구경을 다니는 한량처럼 거리를 배회하며 정여립을 아는 사람들을 찾았다。그런데 모두 여립의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다。

하룻밤은 진녀라고 하는 노기가 경영하는 술집엘 갔다。계남의 거조가 점잖고 술에 취해도 난잡한데가 없는 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진녀는 계남의 주석에 와서 갖가지로 비위를 맞추려고 했다。그러다가

『선비께선 무슨 일로 전주까지 오셨나이까』

하고 물었다。

『정선생의 학덕을 사모하여 오백리길을 한양에서 찾아왔는데 안 계신다고 하기에 가도 오도 못할 지경이 되었소』

계남의 대답이 이러하자

『꼭 ○○ 배우시고 싶으면 정모처럼 이름은 나지않았으되 학식은 못지 않은 인물이 전주에 있읍니다』

하고 이두남(李斗南)이란 이름을 가르쳐 주었다。

계남이 그 이튿날 이두남을 찾았더니 이두남이 계남의 얘기를 듣고 선뜻 말하길

『정여립에게 사사(師事)코자 하는 사람이 나를 무엇 때문에 찾아왔는가』

하곤

『그러나 이러 올라와 보라』

고했다。그리고는 계남의 관상을 자세히 살피고 다음과 같은 말이 있었다。

『젊은이의 사람됨이 한두 마음에 들어서 하는 소리요만、여립과 특별한 관계라도 있으시우?』

『없읍니다』

『그렇다면 여립과 가까이 할생각을 마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까닭은 얘기할수가 없소』

계남은 절대로 여립과 가까이할 생각은 없으되、전주를 지나다가 보니 한번쯤 만나보았으면하는 마음이 내켰다고 말하고 될수만 있다면 정여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자한다고 했다。

그러자 이두남이 물었다。

『당신은 남양홍씨지요』

『예』

『그렇다면 홍성민대감을 아시오?』

『소생의 족형이옵니다』

『간혹 만나시우?』

『만납니다。이번 길을 떠날때도 뵈었읍니다』

『그러하오면 율곡선생과도 면식이 있으시겠구려』

『그러 하옵니다』

『그런데도 정여립을 만나고자 하오?』

『그런 까닭에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여립의 율곡선생에게 대한 행패를 아신다、이 말씀이군요』

『아다 뿐입니까』

『그러시다면』

하고 이두남은 하인을 부르더니 누군가를 불러오라고 일렀다。

종 교 서 관
535-1920
● 기독교및 일반서적
● 성가및 설교테이프
● 각종선물 용품, 백과사전(월드북)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66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6 : 30 /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섭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7 : 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1 : 30 금요오후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6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춘하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1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300 Lawlor Ave. Tor.	698-5383
평신도복음선교회	선교회	예배 주일오후 2 : 00	2501 Warden Ave.	298-9031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 : 30 일요오후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현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섭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